

Issue

Brief

Rebuilding Ukraine

우크라이나 재건사업과 국내 기업의 기회

삼일PwC경영연구원

February 2025





들어가며

'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며 시작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하 '러-우 전쟁')이 벌써 3년이다 되어갑니다. 러-우 전쟁으로 인해 '22년도 우크라이나 GDP는 무려 29%가 감소하였고, 우크라이나는 영토의 20%를 러시아에 점령당했습니다. 또한 코로나 시기와 맞물려 원자재 가격 상승, 공급망 변화 발생이 겹쳐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야기하였습니다.

전쟁이란 발생하지 않아야 할 비극이지만 그로인한 파괴는 누군가에게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미국은 제2차세계대전 이후 마셜플랜을 통해 GDP의 2% 정도의 규모로 유럽을 원조했으나 이는 추후 글로벌 패권국으로 자리잡고 자동차, 가전, 기술, 항공우주 등의 산업의 발전과 주도권을 얻는 계기가 됩니다.

러-우 전쟁 장기화로 그 피해 규모는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은 마셜플랜 이후 최대의 복구사업으로 불립니다. 이번 재건사업을 통해 우리나라도 강점이 있는 분야에서 기회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크라이나, 유럽 국가들 곳곳에서도 전쟁 지속에 대한 피로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또한 취임 이후 전쟁을 종식시키려는 행보를 연일 보이며 전쟁 종식 임박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에서는 러-우 전쟁의 경과, 재건사업 진행현황을 살펴보고, 글로벌 그리고 우리나라의 참여 현황, 향후 우리기업과 정부의 참여 방안 및 기회 요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목차

I. 지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 | |
|---------------|---|
| 1. 전쟁 개요 | 4 |
| 2. 전쟁으로 인한 변화 | 7 |

II.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어디까지 왔나?

| | |
|-----------------------|----|
| 1. 재건사업 개요 | 11 |
| 2. 재건사업 진행 현황 | 14 |
| ※ 참고자료: 과거 전후 재건사업 조명 | 22 |

III.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의 기회와 리스크 요인은?

| | |
|-----------|----|
| 1. 기회 요인 | 25 |
| 2. 리스크 요인 | 29 |

IV. 시사점 및 제언

| | |
|-------------|----|
| 1. 시사점 및 제언 | 31 |
|-------------|----|

Appendix: 우크라이나 개요

| | |
|----------|----|
| 1. 국가 개황 | 34 |
| 2. 교역 | 35 |
| 3. 자원 현황 | 38 |



● 지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1. 전쟁 개요

(1) 전쟁 배경 및 요인

■ 전쟁 발생의 본질

- 유럽내 안보질서를 둘러싼 러시아-서방국가간의 이해관계에서 비롯
- 그러나 이러한 이해관계에 뿐만 아니라 러시아-우크라이나간 경제적, 지리적 요인도 내포되어 있음

■ 발생 요인: 지정학적·경제적 논리에 근거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 우크라이나 독립 이후에도 지속적인 러시아의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지 표출
-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연관성 높은 산업이 존재함
- 유럽의 관문이자 풍부한 자원 보유로 경제적 가치가 높기 때문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지정학적·경제적 요인

| 구분 | 주요 내용 |
|---------|--|
| 지정학적 요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략적 요충지로서의 우크라이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국경과 인접되어 있고, 역사적으로 親러시아와 親서방으로 대변되는 동서간 갈등이 오래 지속. 이에 따라 러시아에게 안보 측면에서, 서방에게는 러시아 견제 측면에서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임 •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을 지속하려는 의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크라이나는 소비에트 연방 국가 중 하나로, '91년 소비에트 연방 해체 이후에도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속적으로 우크라이나의 독립성을 인정하지 않으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영향력 확대 의지 표명 - '14년 우크라이나에서 유로마이단 혁명으로 친러시아 성향의 야누코비치 정부가 붕괴되자 러시아는 크림반도 점령으로 보복 • 미국, 유럽 등 서방세계의 동진 확장 저지 및 舊소비에트 연방국의 친러 정부 이탈 방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변국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가입이 이어지고, 우크라이나 또한 NATO 가입을 시도하자¹⁾,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유럽연합(EU)과 NATO 가입 시도를 지속적으로 견제해 옴. NATO가 러시아를 위협한다고 주장하며 '22년 우크라이나 침공 개시 <p><small>1) 주변국인 체코·폴란드·헝가리 등 3개국은 '99년에, 에스토니아·슬로바키아·라트비아 등 7개국은 '04년, 크로아티아·알바니아는 '09년, 몬테네그로는 '17년, 북마케도니아는 '20년에 NATO에 가입, 우크라이나는 '21년 9월 NATO와 합동 군사훈련 실시</small></p> |
| 경제적 요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적 연관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크라이나는 우주산업, 방위산업 등이 발달하였으며 러시아 기업과의 밸류체인이 밀접히 연관됨. 이는 과거 舊소련 시절부터 항공우주산업 관련 연구기지 및 공장이 우크라이나에 위치하였으며, 과거 舊소련으로부터 관련 생산설비의 1/3가량을 물려받았기 때문임 • 풍부한 자원 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크라이나는 티타늄·철광석·리튬·석탄 등 풍부한 광물 자원 보유. 유럽의 핵심 광물 34개 중 22개 보유 |

Source: 언론자료, KOTRA, 삼일PwC경영연구원

(2) 경과사항

■ 발단 및 경과 사항

- '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3월부터 러시아는 빠르게 우크라이나 남/동부 지역 장악
- '22년 3월 미국의 러시아 제제 및 우크라이나에 군사무기 지원
- 러시아군의 추가적인 공습, 북한군 파병, 그리고 서방의 우크라이나 군사지원에 따른 일부 지역 탈환 등 양측 공격이 지속되며 전쟁 장기화
- 현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점령 지역은 전체 국토의 약 20%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진행과정

| 구분 | | 주요 내용 |
|------|-----|--|
| '22년 | 2월 | •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
| | 9월 | • 러시아, 점령지 영토 편입 절차 강행 |
| '23년 | 6월 | • 우크라이나 대반격 개시 |
| | 12월 | • 러시아, 개전 이후 최대 규모 공습 |
| '24년 | 1월 | • 북한, 러시아에 탄도미사일 제공 |
| | 2월 | • 서방의 우크라이나 지원 지체로 전선 교착 |
| | 8월 | • 우크라이나, 러시아 본토 쿠르스크 진입 |
| | 10월 | •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확인 |
| | 11월 | • 북한군 쿠르스크 전투 참전 • 미국, 장거리 미사일 ATACMS로 러시아 본토 타격 허가 • 우크라이나, 러시아 군사시설에 ATACMS 발사 • 러시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및 핵무기 사용조건 완화 |
| | 12월 | • 러시아, 성탄절에 우크라이나 에너지 시설 공습 |

Source: 언론자료, 삼일PwC경영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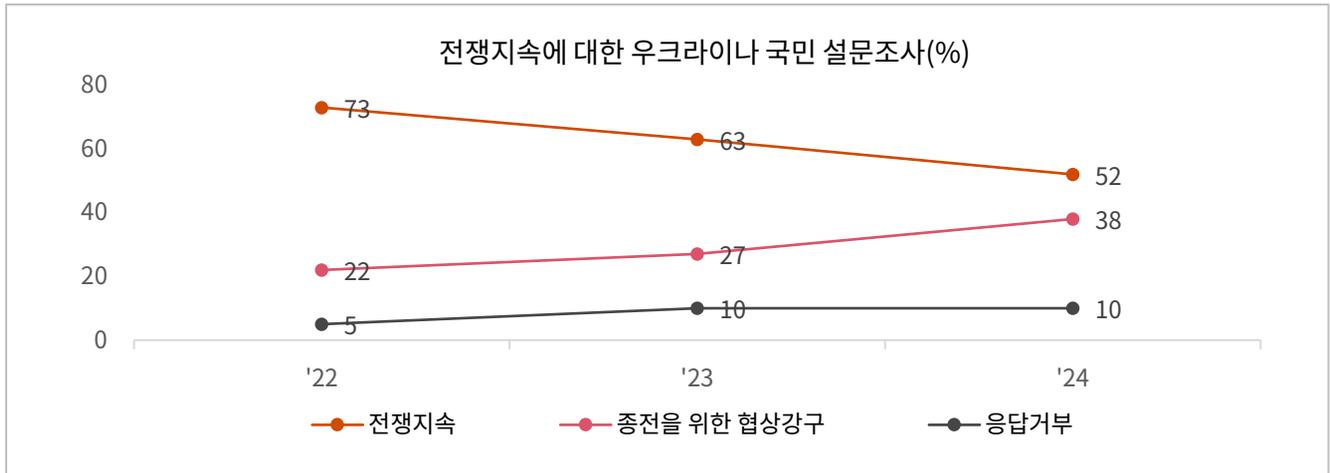
■ 최근 경과 사항 및 종전 논의 가속화

-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기간부터 당선후 현재까지 러-우 전쟁 종전 의지를 강력히 표명
- 이해당사자간의 의견차로 당초 취임 초기보다는 지연되고 있으나 최근 다시 종전 협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음

■ 종전 이후 준비 필요성 존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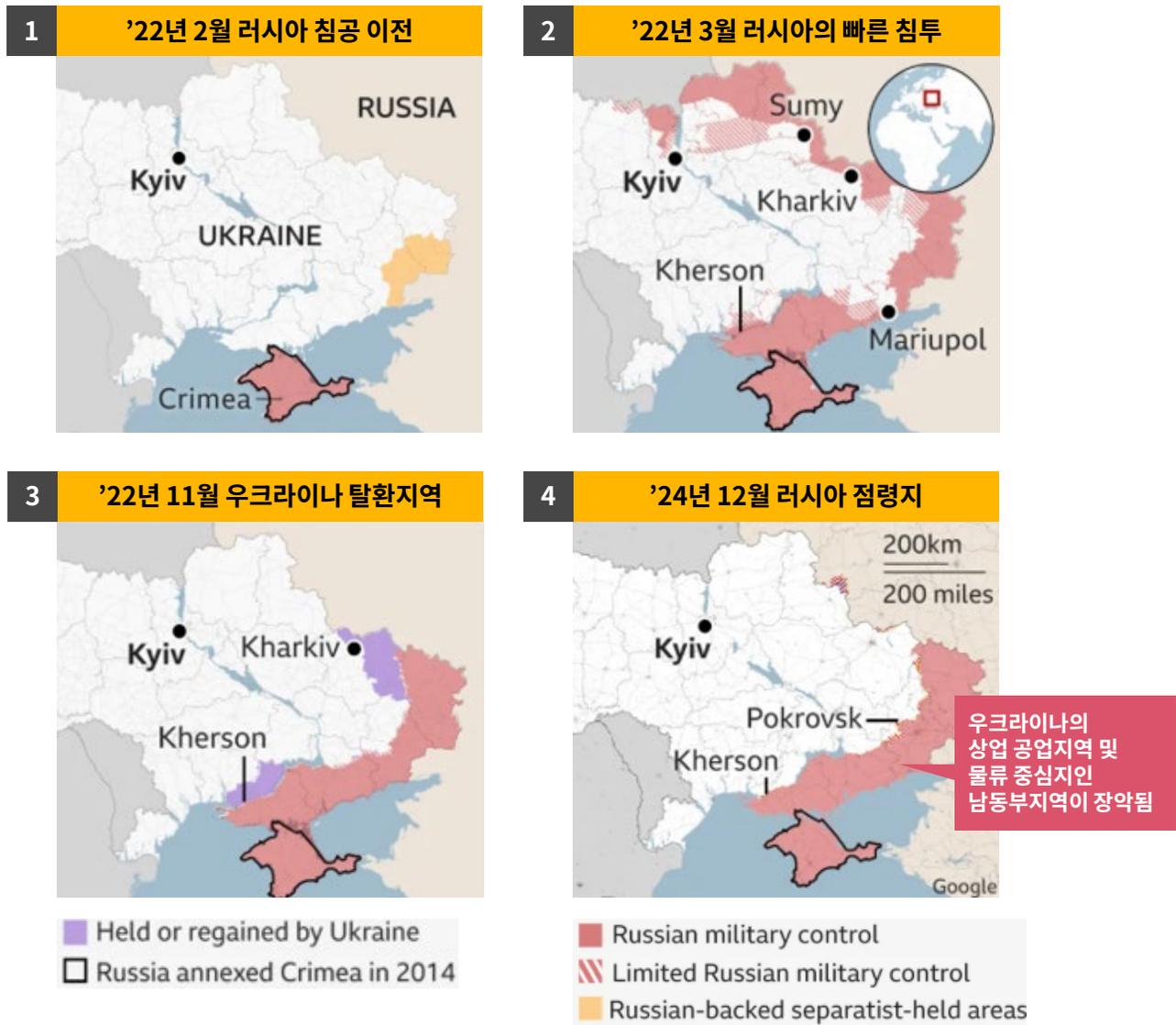
- 트럼프는 종전을 위해 다양한 수단 사용 예상
- 우크라이나 내부의 전쟁 지속 여론 및 유럽 내 전쟁 지원 여론이 급감하며 우크라이나 지원 동력 약화
 - 우크라이나 시민 조사 결과, 전쟁지속 찬성 의견의 비중 감소
 - '25년 1월 KOTRA에 따르면 유럽 7개국(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스웨덴, 덴마크) 대상 여론조사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를 일부 점령하더라도 전쟁을 끝내야 한다'는 응답률 증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전/휴전을 원하는 우크라이나 국민 증가



Source: Gallup, 삼일PwC경영연구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영토 점유 영역



Source: ISW(Institute for the Study of War), BBC, 삼일PwC경영연구원

2. 전쟁으로 인한 변화

(1) 공급망 변화와 원자재 가격 변동성 심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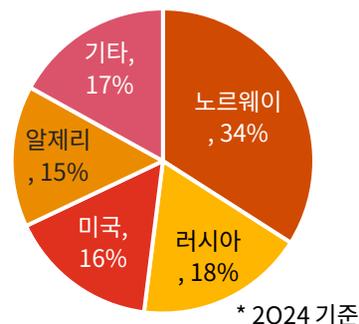
■ 물류 대란 및 공급망 변화

- 러우 전쟁에 따라 주요 항구 봉쇄로 인해 물류차질이 발생함. 전쟁 이전 우크라이나 곡물수출의 48%, 철강 및 철강제품의 45%가 해상을 통해 운송됨
- 갑작스런 육상운송으로의 변경은 처리능력 부족 및 물류비용 급증 등의 문제로 해상운송의 공백을 메우기 어려웠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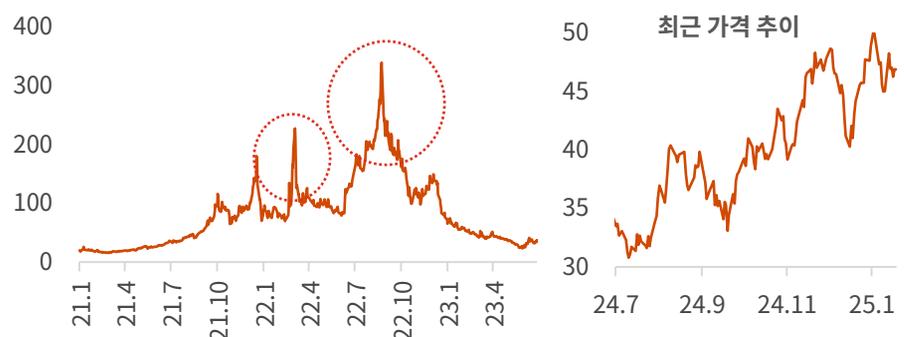
■ 물류 차질에 따른 가격 변동성 급증

- 공급망 문제 발생으로 당시 농산물 및 가스가격 급등, 일례로 유럽 천연가스 가격은 '22년 8월 한때 300유로 이상까지 폭등함
- 러우 전쟁 이후 EU 회원국들은 러시아산 가스 의존도를 낮췄으나 동유럽 국가들은 여전히 러시아산 가스 의존도가 높음
- 한편,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산 가스를 우크라이나 부설 파이프라인을 통해 유럽으로 수송해왔으나, '25년 1월부터 천연가스 수송을 중단. 겨울철 난방수요 증가와 함께 가스공급 불확실성이 높아짐에 따라 공급 중단 이전부터 가격 상승세를 보임
-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유럽국가들의 천연가스 공급망 다변화로 가격 변동성은 다소 완화되었으나 일부 동부 유럽국가들은 여전히 러시아산 가스의 의존도가 높으며 지정학적 불안이 야기될 때마다 가격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음

EU 천연가스 공급 국가별 비중



네덜란드 천연가스 선물가격 추이 (단위: EUR/MWh)



Source: 언론자료, EU, 삼일PwC경영연구원

Source: Investing.com, 삼일PwC경영연구원

- 유럽 국가들이 전쟁 이후 러시아산 화석연료 수입을 줄이자 러시아는 국제시세 대비 저가로 중국·인도 등에 원유 수출 중
- 이에 따라 전쟁 이후 러시아 원유 수출가격(Urals Oil)과 국제 시세(브렌트유) 간 스프레드 확대

브렌트유·러시아 Urals Oil 시세 및 스프레드 (단위: 달러/bbl)



Source: Investing.com, 삼일PwC경영연구원

(2) 현대전의 패러다임 변화를 보여준 전쟁-미래 전쟁의 축소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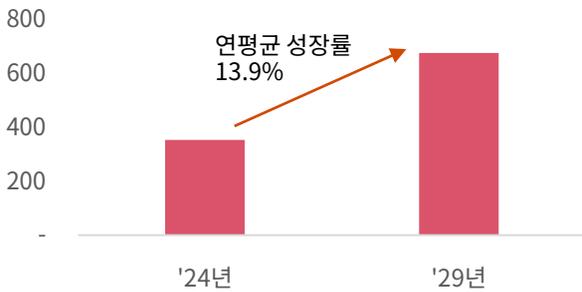
■ 전쟁에 첨단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미래 전쟁의 양상을 잘 드러낸 전쟁

- 러-우 전쟁은 전통적인 군사 기술과 더불어 각종 첨단기술을 활용한 사이버 작전, 정보전 등이 결합된 형태로 나타나면서 하이브리드 전쟁이라고 불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공격 이전부터 우크라이나 외교부, 국방부 등 정부기관의 사이버 공격을 단행해왔으며, 첨단기술을 이용한 무인 드론, 첨단 통신기술, AI 등이 적극 활용됨

① 무인 드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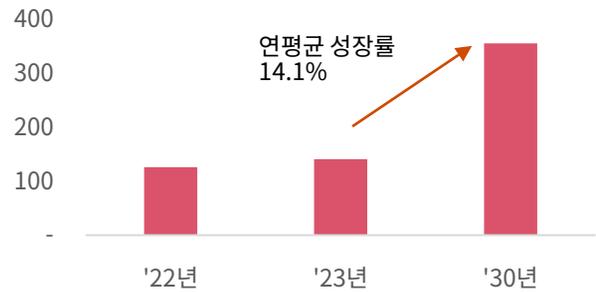
- 드론은 저렴한 가격으로 전장을 실시간으로 파악, 정밀 타격 유도 및 자폭 등 직접 공격을 수행
- 전쟁 초기 NATO의 무기 지원이 여의치 않자 상업용 드론을 개조해 활용하기 시작, '23~'24년에 들어서 드론을 군사적 핵심 자산으로 인식하고, 정찰, 공격, 자폭용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함
- 러시아도 드론을 통한 우크라이나 주요 발전시설에 대한 대규모 공격을 감행하며 양국 모두 드론을 활용함
- 이러한 드론의 활약으로 세계 각국은 드론을 전력화하려는 움직임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 드론의 군사적 기술 발전과 시장확대로 연결될 전망

글로벌 드론 시장전망 (단위: 억 달러)



Source: Mordor Intelligence, EU, 삼일PwC경영연구원

글로벌 군용 드론 시장전망 (단위: 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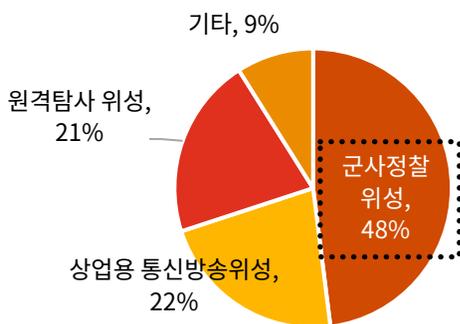


Source: Fortune Business Insights, 삼일PwC경영연구원

② 첨단 기술 사용 - AI 및 첨단 통신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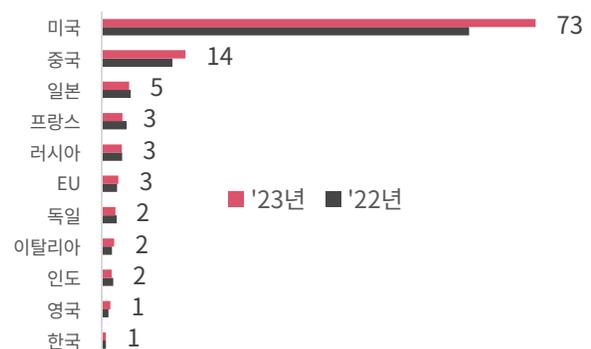
- 러-우 전쟁에서는 전장에서 첨단 기술 사용이 활발히 일어났는데, 일례로 전쟁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군사 지휘 시스템인 GIS 아르타 무력화하며 공격 → 스페이스X의 저궤도 통신 위성망 Starlink를 통해 복구한 사례가 있었으며, 맥사 테크놀로지, 플래닛 랩스 등은 자사가 운영하는 위성으로 촬영한 러시아군의 고해상도 사진을 언론에 지속 제공함
- 위성을 활용한 우주산업이 지휘통제·감시·교란·타격정밀화 등 국방분야에서 높은 활용성을 보이면서 세계 국방 선진국들은 미래전투작전을 지상·해상·공중을 넘어 우주까지 포괄하는 통합작전으로 확장하는 추세
- 앞서 언급한 드론 활용에 있어서도 AI기술을 접목하여 적군의 정보를 수집, 빠르게 분석하여 전쟁에 활용

'22년 위성체 제작 세부 분야별 시장 비중



Source: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삼일PwC경영연구원

주요국 정부의 우주 투자 규모 (단위: 십억 달러)



Source: Statista, 삼일PwC경영연구원

③ 민간 기업의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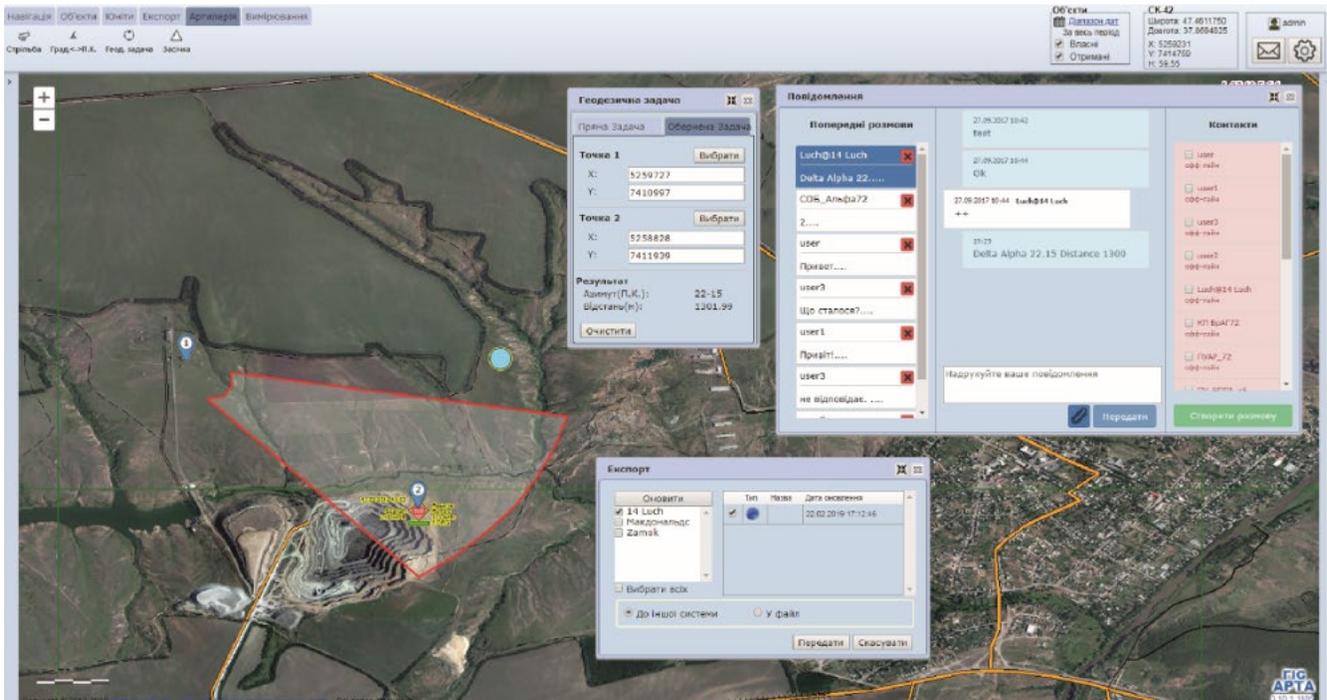
- 상업용 드론의 전쟁 활용 및 민간 기업의 첨단 AI와 통신 기술 등이 전쟁에 적극적으로 활용됨
- 방산기업인 팔란티어, 안두릴과 같은 기업뿐만 아니라 오픈 AI와 스페이스X와 같은 민간기업의 기술이 전쟁에 사용
- 간접적으로 구글도 우크라이나의 실시간 도로 상황 정보 제공을 차단하는 방법으로 전쟁에 기여

국방분야 첨단기술 기업 및 활동 영역

| 기업 | 활동영역 | 주요고객 | 사례 |
|-------|--|---|---|
| 팔란티어 | • 공공정보 분석서비스제공 • 데이터 추론과 의사결정 지원체계 제공 | 미 국방부, 중앙정보국(CIA), 연방수사국(FBI), 우크라이나군 등 | • 러-우 전쟁, 드론공격에 대한 프로그램 제공 • 넵툰스피어 작전(빈 라덴 사살 작전) 활용 |
| 안두릴 | • 무인기 체계, 드론방어 기술, C4I 기술 등 | 미 공군 등 | • 미군에 첨단 드론 납품, 차세대 전투기 기술 개발 참여 등 |
| 오픈 AI | • 생성형 AI(ChatGPT) | 미 국방부와 민간 산업계 등 | • 미군 사이버 보안 SW 및 드론 방어체계 개발 참여 |
| 실드 AI | • AI파일럿, 무인기 | 미군, 해안경비대, 해병대, 일본 자위대 | • 러-우 전쟁 투입 |
| 스페이스X | • 우주위성발사서비스 • 위성통신 | 미 항공우주국(NASA), 국가정찰국(NRO), 우크라이나군 등 | • 우크라이나 위성통신서비스(Starlink) 제공 등 |

Source: 언론자료, 삼일PwC경영연구원

우크라이나 지휘 통제 프로그램 GIS 아르타



Source: GIS Arta 홈페이지



II.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어디까지 왔나?

1. 재건사업 개요

(1) 재건사업 관련 논의 동향

■ 국제사회의 재건 논의-URC(Ukraine Recovery Conference)

- 국제사회의 재건 논의는 URC에서 최초로 논의되었으며 '22년부터 '24년까지 3차례 회의 개최
- 1차회의('22년 7월, 스위스 루가노), **우크라이나 정부의 국가 복구 계획과 재건의 7대 원칙 정립**
- 2차회의('23년 6월, 영국 런던), **핵심 투자 분야 설정 및 재건 방향과 과제 제시, 민간 주도 재건사업 추진 강조**
- 3차회의('24년 6월, 독일 베를린), **우크라이나 재건, 개혁, 현대화에 대한 국제사회 관심과 지지 호소**

우크라이나 재건회의(URC) 연혁

| 구분 | 1차 URC | 2차 URC | 3차 URC |
|-------|--|--|---|
| 연월 | '22년 7월 | '23년 6월 | '24년 6월 |
| 개최지 | 스위스 루가노 | 영국 런던 | 독일 베를린 |
| 참가국 | 40여개국 | 60여개국 | 60여개국 |
| 주요 내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국가복구계획 발표 • 루가노 선언(Lugano Declaration) → 우크라이나 재건 7대 원칙 제시 ① 파트너십 ② 개혁 중심 ③ 투명성·책무성·법치 ④ 민주적 참여 ⑤ 다양한 이해관계자 연대 ⑥ 성평등·포용성 ⑦ 지속가능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크라이나 개발 펀드(UDF) 설립 계획 발표 및 5대 투자 분야 설정 ① 에너지 ② 인프라 ③ 농업 ④ 제조업 ⑤ IT • 재건 방향과 과제 제시 ① 민간 주도 복구 ② 민간 투자 활성화 유도 → 전쟁보험 프레임워크 구축 ③ 혁신 발전과 녹색 경제 이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추가 지원 약속, 분야별 투자 협정 체결 • 공동선언 채택 ① 민간기업 지원 ② EU 통합 ③ 지역개발 ④ 인적자원 육성 |

Source: URC, 삼일PwC경영연구원

■ 재건 목표와 방향

- 재건 계획의 목표
 - **회복력(Resilience):** 경제적·사회적·환경적 회복력 제공
 - **복구(Recovery):** 조속한 복구를 위한 효율적인 해결책 찾기
 - **현대화·성장(Modernization and growth):** 국민의 복지 증진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한 현대화 계획 수립
- 파괴시설 복구를 넘어, 경제성장 기틀 마련, 경제·사회·법치 등 국가 개혁 기회로 삼아 경제성장 동력을 확보하고자 함
- 재건에 소요될 자금조달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민간 자본 투자 유도**

우크라이나 국가 재건계획 원칙

| 원칙 | 설명 |
|--|---|
| Start now, ramp up gradually (지금 시작, 점진적으로 강화) | • 안보 위협 속에도 경제가 기능할 수 있도록 가급적 빠르게 재건 계획 개시 후 점진적 확대 |
| Grow prosperity in equitable way (공평한 방식의 성장) | • 재건 계획의 최종 수혜자는 우크라이나 국민 • GDP 성장과 부의 공평한 분배 및 전반적인 복지 증진 |
| Integrate into EU (EU 편입) | • 제도·규제의 전략적 정의 • 친환경 밸류체인과 지식·정보 네트워크를 포괄한 우크라이나 경제 유럽 통합 |
| Build back better for the future (미래를 위한 더 나은 재건) | • 더 나은 품질과 지속가능한 기술로 재건 • EU에 부합하는 녹색·디지털 전환 |
| Enable private investment & Entrepreneurship (민간 투자 및 기업 활성화) | • 민간 투자 및 기업 활성화를 촉진하는 재건 • 새로운 경제 모델의 주축인 중소기업 지원 |

Source: National Recovery Council, 삼일PwC경영연구원

■ 재건 15대 과제

- 3대 방향과 더불어 전시 → 전후 → 새로운 경제의 3단계로 분류된 15대 국가 과제(National Programs) 설정
- 당초 계획은 '23년 종전을 예상하고 '23~'25년을 전후 기간으로 설정하여 수립되었으나 '25년 초 현재까지 전쟁이 지속됨에 따라 과제 이행 기간이 연기될 전망

우크라이나 국가 재건 3대 방향 및 15대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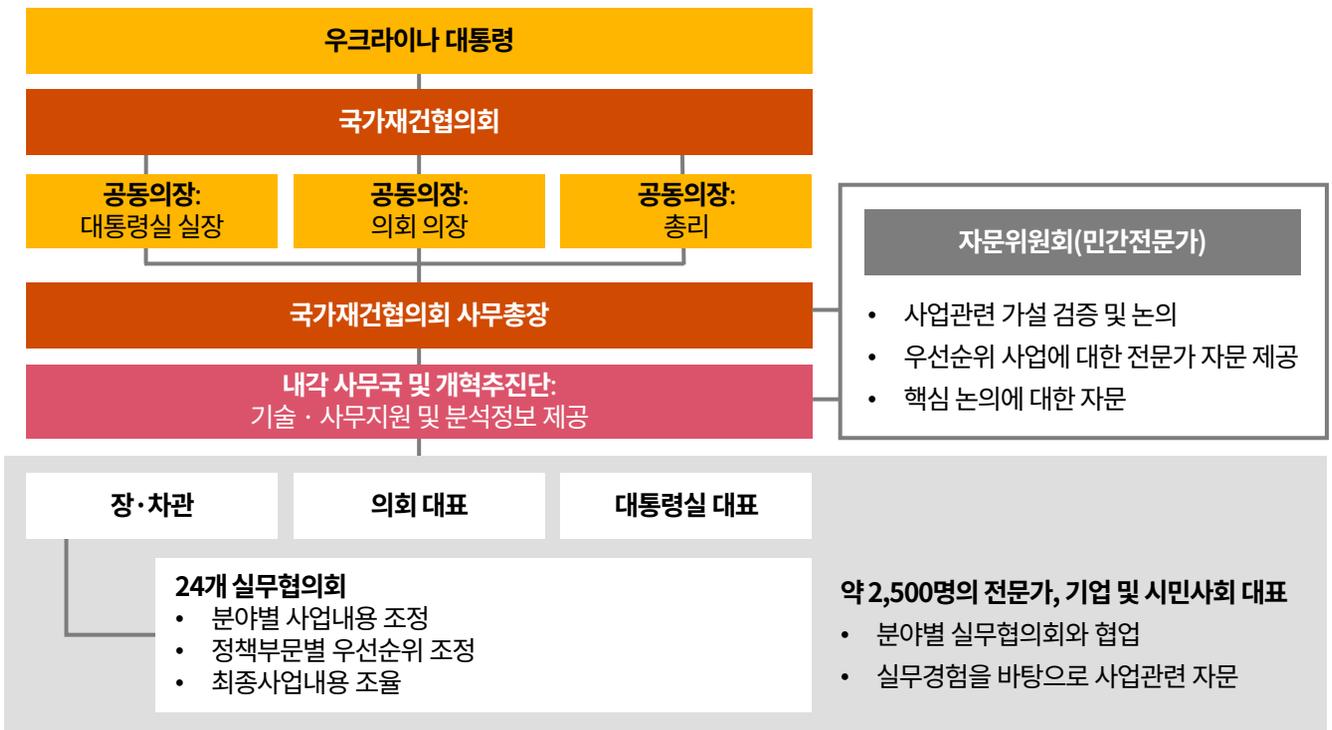
| Resilience(회복력) | | Recovery(복구) | | Modernization and growth (현대화 · 성장) | |
|-----------------|--------------|--------------------------------|---------|--|-------------|
| ① 전시('22년) | | ② 전후('23~'25년) → 전쟁 장기화로 지연 | | ③ 새로운 경제('26~'32년) → 전쟁 장기화로 지연 | |
| 국방력 강화 | EU 편입 가속화 | 비즈니스 환경 개선 | 긴급자금 확보 | 산업경쟁력 개발 | 교육시스템 개선 |
| 청정·안전환경 구축 | EU 에너지 통합 강화 | 거시경제 안정화 | | EU 물류망 통합 | 보건·의료시스템 개선 |
| | | | | 주택 재건·개선 작업 | 문화·체육시스템 개발 |
| | | | | 사회 인프라 복구·현대화 | 사회안전망 구축 |

Source: KOTRA, National Recovery Council, 삼일PwC경영연구원

■ 재건사업의 주체

- 재건사업 추진의 효율성 및 일관성을 위해 주체적 역할을 할 기관의 존재가 매우 중요
- 우크라이나 내에서는 ① 국가재건협의회(National Recovery Council), 국제사회에서는 ② 다자공여자공조플랫폼(MDCP: Multi-agency Donor Coordination Platform)이 주축이 되어 재건사업을 이끌어가고 있음
- ① 국가재건협의회: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여 우크라이나 복구계획 관리를 일임

우크라이나 국가재건협의회 구조



Source: Ukraine Recovery Conference('22),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삼일PwC경영연구원

② MDCP

- 우크라이나 단기 재정지원 및 중장기 재건 지원 조율, 우크라이나 개혁 관련 사항을 논의할 목적으로 '23년 1월 출범
- **G7 등 주요 공여국과 EU 집행위, 우크라이나 및 국제금융기구**(World Bank, OECD, IMF, 유럽부흥개발은행 등)으로 구성. 한국은 '24년 2월 제 8차 운영위원회에서 공식 가입

우크라이나 다자공여자공조플랫폼(MDCP) 구조

| 수도 · 본부 간 협의체 | 플랫폼 지배구조 | 이해관계자 참여 | 우크라이나 내 협의체 |
|--|--|--|------------------|
| G7 재정 트랙 • 우크라이나 단기 재정지원 | 분야별 워크숍 • 회원국의 분야별 담당 부처·기관이 참여하여 공약사항 및 집행 점검 • 6대 분야: 지뢰제거, 주거, 에너지, 핵심 사회인프라, 민간부문 활성화, 교통 | 비즈니스 자문위원회 • 민간부문 투자 유치 지원 | G7 대사 그룹 |
| G7+ 에너지조정 그룹 • 전력망 복구에 필요한 장비·자금 제공 • 장비 구입 우선순위 및 물류 조정 | 운영위원회 • MDCP 관련 의사결정권을 보유한 차관급 협의 메커니즘 • 공동의장: 우크라이나 재무장관, 미 국가안보 부보좌관, EU 총국장 | 시민사회 협의회 • 재건을 위한 혁신적인 아이디어 및 모범사례, 지원방향 등 제공 • 운영위원회, 전문가그룹과의 정기적 교류 | 조정 그룹 책임자 |
| 국제금융기구 그룹 • CEB, World Bank, EBRD, EIB, IMF, OECD • 정기적으로 운영계획 조정 | 전문가·실무 그룹 • 과장급 실무 협의체 • G7 재정 트랙, G7+ 에너지조정 그룹, 국제금융기구 그룹으로 구성 | | 부문별 실무 그룹 |
| | 사무국 • 벨기에 브뤼셀 및 우크라이나 키이우 소재 • MDCP 전반의 행정 지원·조율 | | |

Source: Ukraine Donor Platform, 대통령실, 언론자료, 삼일PwC경영연구원

2. 재건사업 진행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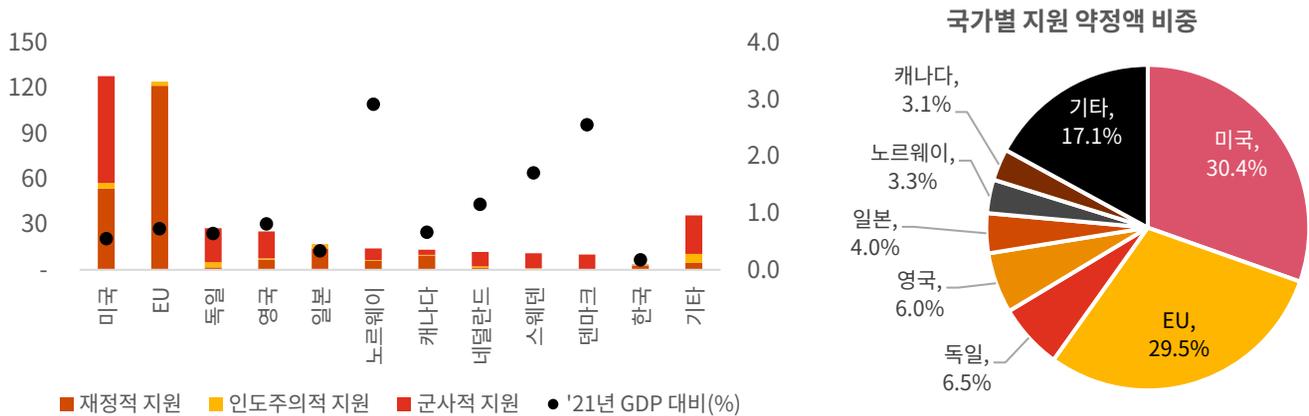
(1) 우크라이나 지원 현황

■ 지원 규모

- 독일의 연구기관 Kiel Institute가 '22년 1월 24일부터 '24년 10월 31일까지 집계한 우크라이나 지원 규모를 살펴보면 약 정액²⁾ 기준 총 합산액은 4,213억 달러 규모, 할당액²⁾ 기준 2,498억 달러 수준임
- 국가별로 미국이 1,280억 달러, 기관 차원에서 EU가 1,244억 달러, EU 회원국들이 921억 달러, 그 외 국가들이 768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약정함. 할당액은 미국 950억 달러, EU 481억 달러, EU 회원국 658억 달러, 그 외 국가 408억 달러로 집계
- 약정액 기준 미국은 지원 규모의 55%가 군사 지원에 해당하며, EU의 지원은 대부분 재정적 지원(98%)에 집중됨
- GDP 대비 지원규모의 비중은 약정액 기준 노르웨이, 할당액 기준으로는 덴마크가 높음. 그러나 우크라이나 난민 비용까지 고려하면 폴란드가 GDP 대비 5.1%로 가장 높으며,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등 발칸반도 국가의 기여도가 높음
- 한국의 지원 약정 규모는 32.8억 달러(재정적 지원 비중 85%), 할당액 8.5억 달러(재정적 지원 비중 60%)로 각각 23위, 13위
- 현재까지의 지원 약정액 및 할당액은 World Bank가 RDNA3에서 발표한 추정 복구액 4,862억 달러에 미달. 이 또한 '24년 이후의 복구 추정액은 미반영되어 있어 추후 필요금액은 더 증가할 전망
- 현재는 원조액을 정부 운영 및 방위비, 긴급복구 등에 사용하고 있으며, 미국의 추가 지원 축소시 재건사업 여력이 부족해 저민간의 투자참여가 요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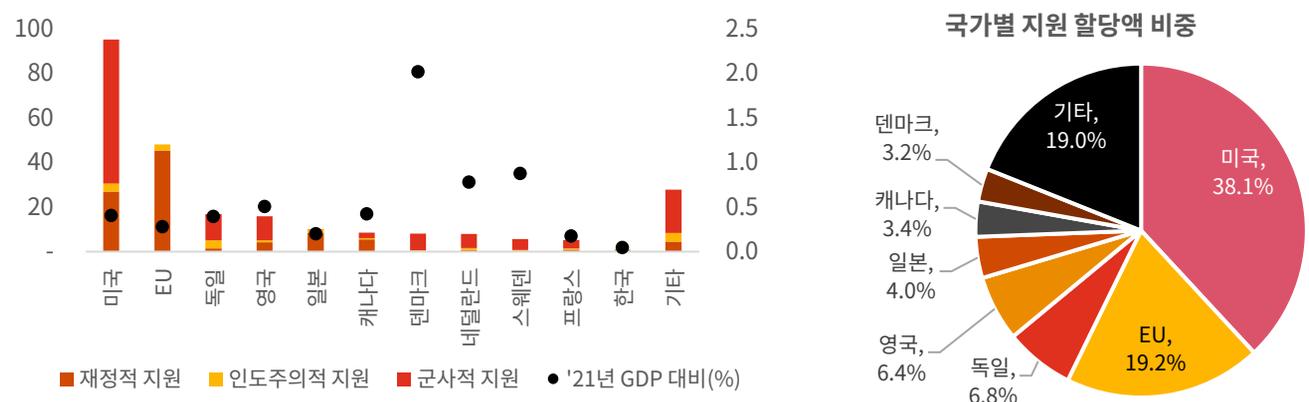
²⁾약정액: 지원기로 약속한 금액 / 할당액: 이미 지원했거나 특수분야에 지원하기로 예정된 금액

'22년 1월 24일 ~ '24년 10월 31일 국제사회의 우크라이나 지원 약정액 (단위: 십억 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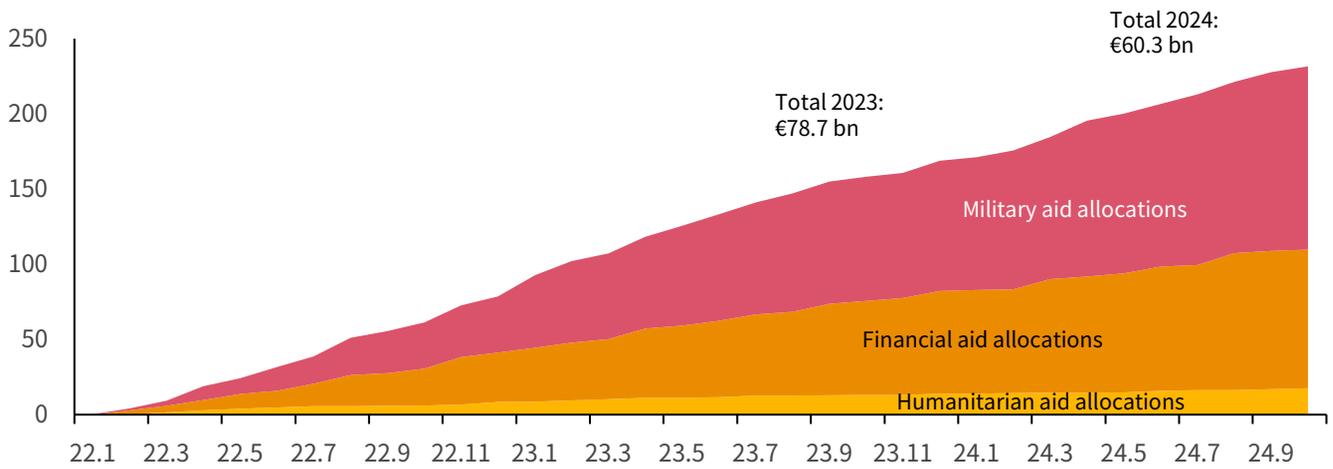
Source: Kiel Institute, 삼일PwC경영연구원

'22년 1월 24일 ~ '24년 10월 31일 국제사회의 우크라이나 지원 할당액 (단위: 십억 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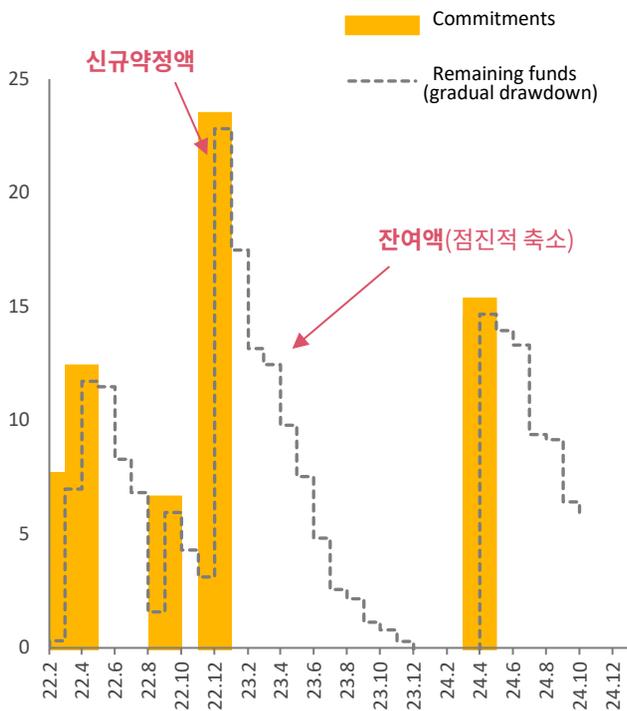
Source: Kiel Institute, 삼일PwC경영연구원

'22년 1월 24일 ~ '24년 10월 31일 국제사회의 우크라이나 지원 약정액 추이 (단위: 십억유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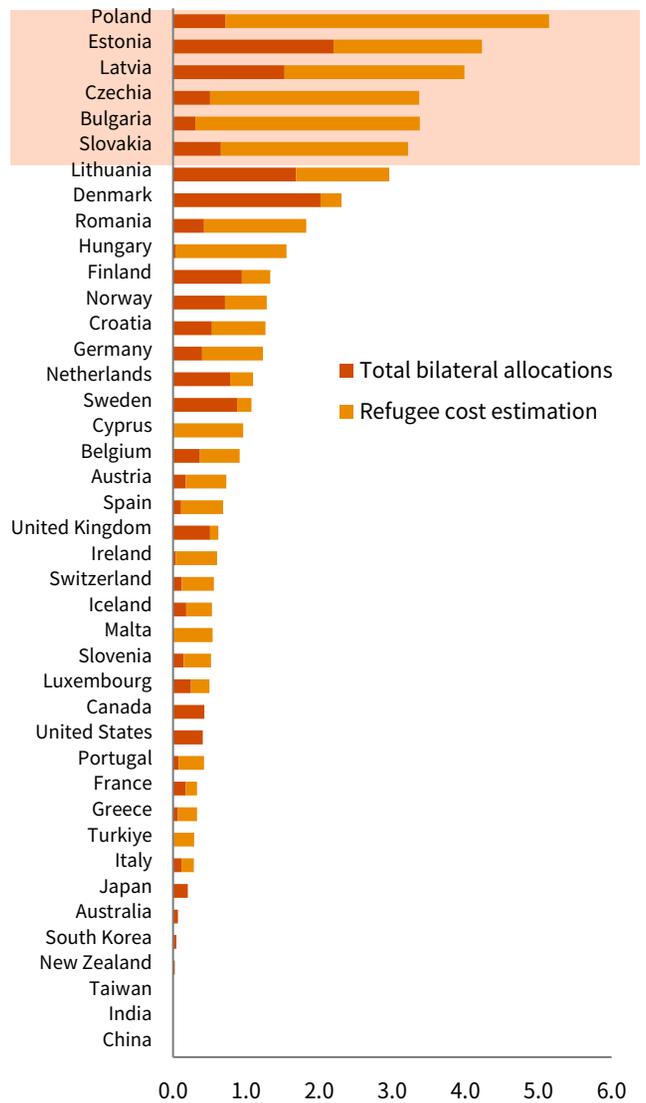
Source: Kiel Institutes, 삼일PwC경영연구원

미국의 군사적 지원 약정 규모 및 잔여 (단위: 십억유로)



Source: Kiel Institutes, 삼일PwC경영연구원

난민수용비용을 감안한 국가별 GDP대비 지원 비중 (%)



Source: Kiel Institutes, 삼일PwC경영연구원

■ 최근 지원 현황 변화

- 미국: 트럼프의 러-우 전쟁 종식 의지가 강하고, 미국이 세계 경찰로서의 역할을 축소하고자 함에 따라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줄이고 전쟁을 조속히 결론지으려 할 것으로 예상
- 유럽 또한 낮은 경제성장률과 전쟁장기화에 따라 지원 여론 급감
- 정부차원보다는 민간기업 혹은 러시아 동결자산 활용을 보다 선호할 것으로 예상

■ 자금 조달

- 우크라이나 재건에 필요한 자금은 **국제기관과 각국 정부의 공적자금** 투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민간 투자, 러시아 동결자산 활용**에 이르기까지 조달 경로 다각화를 위한 논의 진행 중
- 앞서 언급한 각 국가별 기관별 지원금액은 군사적, 인도적, 재정적 지원액을 포함하나 재건사업에 사용될 수 있는 여력은 충분치 않음. 현재 우크라이나 정부의 열악한 재정상태와 추후 재건사업 규모가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지원 및 민간 차원의 투자가 필수적임

① 국제기관

- **World Bank, EBRD 등 국제금융기관들은 대출 형태로 우크라이나 자금 지원**

국제기관의 우크라이나 지원

| 구분 | 주요 내용 |
|-------------------|---|
| 국제통화기금 (IMF)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2년 3월 신속금융제도로 긴급자금 지원 • '23년 3월 156억 달러 규모 한도의 확대신용공여(Extended Fund Facility, EFF) 지원 결정 - 확대신용공여: IMF가 구조적 요인으로 국제수지가 장기간 악화된 회원국에 자금을 지원하는 기금 |
| 세계은행 (World Bank)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RTF(Ukraine Relief, Recovery, Reconstruction and Reform Trust Fund) - 우크라이나 신탁기금, '22년 12월 조성 - 인명 구호, 물류 인프라 복구, 에너지자원 복원, 주택 재건 등 수행 - 의료, 주택 수리, 농업 회복 및 교육 프로젝트 진행(Heal/Hope/Arise/Learn) - 현재까지 약 500억 달러의 기금 지원 • 행정 역량 유지를 위한 공공지출: PEACE(Public Expenditures for Administrative Capacity Endurance) - 세계 주요국과 URTF의 기부금을 통해 추진 - 아동 및 가족 복지, 정부 행정 및 공공 서비스 역량 유지에 초점 - 연금 지급,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 프로그램 포함 |
| 유럽부흥개발은행 (EBRD)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2년 7월 위기대응 특별기금(Crisis Response Special Fund, CRSF) 조성 - 에너지 안보, 필수 인프라, 식량 안보, 무역 금융 등을 지원 우선 분야로 제시 • Resilience and Livelihoods Framework - 인프라 복구, 에너지, 교통망 재건 프로젝트 참여 - 소규모 및 중소기업(SME)을 대상으로 지원 확대 |
| 유럽연합(EU)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extGenerationEU: 팬데믹 회복을 위해 개설된 기금이나 우크라이나의 재건에도 일부 사용, 우크라이나의 인프라 재건과 경제 회복에 중점 |

Source: 언론자료, KOTRA,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삼일PwC경영연구원

② 민간 참여

- 공적자금만으로는 재건사업 총당이 어려워, **민간의 참여 적극 유도, 민관협력사업(Public Private Partnership, PPP) 추진**
- **Investment Nannies 법 적용으로 외국인 투자 유도**: 자국 투자 외국기업에 토지 사용우선권과 최대 5년간의 소득세 면제, 장비 수입 관세 면제 등의 혜택 제공
- '23년 URC에서 **민간 주도 복구,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전쟁보험 프레임워크 구축 등을 제시**하였으며, '24년 URC에서는 **민간기업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공동선언 채택**
- '24년 11월 EU, 우크라이나 복구·재건에 투자할 기업 모집. 우크라이나 정부와 함께 'EU·우크라이나 투자 컨퍼런스' 진행
- **UDF(Ukraine Development Fund)**: 목표 자금 최소 150억 달러, 국가개발은행으로부터 최소 5억 달러 확보 및 민간 투자자를 대상으로 20억 달러 추가 모금 계획. BlackRock과 JP Morgan이 해당 펀드에 참여할 예정

③ 러시아 동결자산 활용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서방은 러시아의 해외 자산 동결, 그 규모는 약 3천억 달러로 추산
- 미국은 러시아 동결자산 몰수를 제안했으나 재산권에 대한 국제법 위반 여지가 있어 대체안으로 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수익 활용 방안 부상
- '24년 6월 G7 정상회의에서 동결자산 이자수익을 활용한 500억 달러 규모의 우크라이나 지원에 합의
- 전쟁 종식 후에도 러시아 동결자산(및 금융수익)이 우크라이나 재건에 필요한 주요 자금 공급원이 될 가능성이 높으나, 러시아의 강한 반발과 러시아 내 서방 자산에 대한 보복성 동결조치 가능성이 있어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한 상황

■ 재건사업 참여시 보증 Program

- 재건사업에 대한 보증 Program은 원활한 민간 자본 투자를 유도하고 사업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필수적인 제도
- 우크라이나가 발표한 국가 정책 우선순위 중 하나인 '안정적 경제' 항목에도 투자환경 조성 및 전쟁보험 지원 내용 포함

① 지원 현황

- **국제투자보증기구(MIGA):** 우크라이나 전쟁보험 지원. '23년 URC에서 독일 금융회사 ProCredit과 보증 규모를 1,710만 유로에서 4,085만 유로로 확대하는 양해각서 체결
-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24년 Aon과 함께 재보험사 지원 목적의 우크라이나 재건 보증 기금(1.1억 유로 규모) 마련
- **미국 국제개발금융공사(DFC):** 전쟁보험 상품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재보증을 지원하는 5천만 달러 규모의 기금 마련. 농업·제약·교육 분야 등에 대한 정치적 위험보험에 3억 5,000만 달러 지원 발표
- **폴란드 무역보험공사(KUKE³⁾):** 정치적 위험 및 불가항력으로 인한 해외직접투자 손실을 보전하는 투자보험 제공. '24년 URC를 계기로 MIGA와 우크라이나 투자 유치를 위한 재보험 업무 협약 체결
- 영국: 전쟁보험과 금융·서비스 전문 지식을 공유하는 'CityUK-Ukraine Hub' 등을 통해 민간의 참여 유도

³⁾ KUKE 투자보험(Investment insurance): 외국 기업에 대한 금전적·유무형 지출 및 법적 자산(기존 투자 포함)의 투자가치의 90%까지 보장. 전세계 200여개 국가에 적용. 최대 20년 보장

Source: <https://kuke.com.pl/en/investment-insurance>

재건사업 보증 관련 국제사회 동향

| 구분 | 주요 내용 |
|--------------------|--|
| 제2차 URC ('23년 런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건 과제 중 하나로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전쟁보험 프레임워크 구축 제시 • 영국은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에 참여하는 민간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G7이 보장하는 전쟁보험 체계를 만들 것을 공표 • MIGA와 ProCredit, 보증 규모를 확대하는 MOU 체결 • EBRD, 전쟁보험 시범제도 도입 의사 표명 |
| 제3차 URC ('24년 베를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FC, 우크라이나 외국인 투자 촉진을 위해 전쟁 재보험 기금 마련 및 정치적 위험보험 지원 발표 • DFC의 재보험 기금은 캐나다 금융회사의 우크라이나 자회사 ARX가 전쟁보험 상품을 확대할 수 있도록 DFC의 재보증을 지원 • MIGA와 폴란드 수출신용기관 KUKE 간 우크라이나 전쟁보험 업무협약 체결 |

Source: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언론자료, 삼일PwC경영연구원

② 한국 동향

- '24년 6월 베를린 URC에서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는 폴란드 수출신용기관 KUKE와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KUKE는 자국 내 법인 설립여부 등을 판단해 외국 기업에도 자국 기업과 동등한 전쟁보험 제공)
- KIND와 KUKE 간 업무협약은 폴란드의 전쟁보험을 활용하고 공동 금융 프로젝트 개발에 나서는 것이 골자로, 폴란드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전쟁보험을 활용해 우크라이나에도 진출할 것으로 기대

(2) 국가별 재건사업 참여 현황

■ 주요국 재건사업 참여 현황

- 주요국들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며 재건사업 참여 기회를 적극적으로 탐색 중
- 막대한 규모로 추산되는 재건사업을 두고 향후 국가 간·기업 간 수주 경쟁이 거세질 전망

주요국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참여 현황

| 국가 | 지원 및 참여 활동 |
|-----|--|
| EU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크라이나에 가장 많은 재정적 지원 제공 및 약속 • '24년 3월 우크라이나 기금 출범 - 우크라이나 복구와 재건, 현대화를 위한 재정지원 - 도시 재건 및 현대화, 녹색 이니셔티브(green initiatives), 중소기업 지원 사업에 투입할 계획 • 민간 부문: 독일 바이엘(Bayer)은 농업 설비, 병원 및 공중보건 인프라 재건을 위한 지원, 철강업체 아르셀로미탈(ArcelorMittal) 등이 키이우 4천만 유로 투자계획 밝힘 |
| 미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크라이나 최대 지원국. '24.10월말 기준 1280억 달러 지원 약정, 군사적 지원 약정액은 706억 달러 수준(Kiel Institute, '24.10월말 기준) • 미국 국제개발처(USAID), 전쟁 발발 이후 우크라이나에 약 230억 달러 규모의 재정지원 • 독일과 함께 다자공여자공조플랫폼(MDCP)의 의사결정 지원 수단인 비즈니스자문위원회(BAC) 출범 주도 • 5,000만 달러 규모의 전쟁위험 재보험 기금(war-risk reinsurance facility) 마련 • 우크라이나 중소기업을 위한 2,800만 달러 대출 포트폴리오 보증 • 3억 5,000만 달러 이상의 정치적 위험 보험(political risk insurance) 계약 |
| 폴란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크라이나와 국경이 맞닿아 있고, 우크라이나 난민 수용하며 우크라이나 지원의 허브 역할 수행 • 우크라이나 난민 수용 비용까지 감안시 GDP대비 5.1% 해당하는 지원 규모 → 단일국가중 가장 높은 비중 • '23~'24년 바르샤바에서 우크라이나 재건 박람회 세차례 개최 - 주택 건설, 에너지 및 교통 인프라를 비롯해 제조·가공, 화학, 물류 서비스 등의 분야에 자국 기업들의 참여 독려 • 재건사업에 3,000개 기업 관심 → 300개 기업 진출 • 도로 건설 등 인프라 수주 추진 |
| 일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일 국가 기준, 미국, 독일, 영국에 이어 네 번째로 큰 공여국이자 아시아권역내에서는 최대 • '23년 5월에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 총괄 협의체인 우크라이나 경제 재건 촉진 준비위원회를 발족 •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7대 협력 분야로 ① 에너지, 원전, 천연가스, 수소에너지, 수력발전, ② 농업 분야, ③ 인프라 재건, ④ 고속도로, 철도, 교량, ⑤ 자동차 산업, ⑥ 리튬 등 광물자원(전기자동차 연계), ⑦ 디지털 및 사이버 보안 제시 •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우크라이나 경제발전 및 투자 촉진 회의를 발족, 일본무역진흥기구의 키이우 사무소 개소, 전쟁보험 프레임워크 구체화 등을 실시 |
| 영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3년 6월에 런던 URC를 주최. 민간 주도 복구,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전쟁보험 프레임워크 도입, 우크라이나의 혁신 발전과 녹색경제 이행 등 실질적인 우크라이나 재건 방향과 과제에 대한 논의 심화 • 전쟁 보험과 금융 및 서비스 분야의 전문 지식을 공유하기 위해 'CityUK-Ukraine Hub'와 같은 여러 이니셔티브를 통해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민간 부문 참여를 독려 • 우크라이나와 '100년 파트너십' 체결,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 |
| 독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4년 6월에 베를린 URC를 통해 민간기업 지원, EU통합, 지역 개발, 인적자원 육성 등 우크라이나 재건의 중장기 방향과 실천과제 모색을 위한 논의를 구체화 • 수력 및 전력발전소 등 에너지 인프라 복구, 식량 자금을 향상, 원자력 발전소 보호, 전기 발전기 및 IT 장비 공급 지원, 난민 / 중소기업 지원 등 다방면에 걸쳐 지원 • 투자 기업: 라인메탈(탄약공장 신설, 장갑차 생산계획), 픽시트(건자재공장 건설 중), 바이엘(중자생산 투자) |
| 기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튀르키예: 무인기 바이락타르 우크라이나에서 직접 생산, 지난 10년간 꾸준한 건설 수주 이력 보유 - 약사파워('23년 11월 재건 전담 관리자 파견), 도구스 건설(영국 지원 받아 3개 교량 재건 후 20억 달러 상당 계약 기대), 오누르 그룹(현지 폭파 교량 수리, 삼성물산과 이동식 병원 건설 수주) • 오스트리아: 바그너-비로(우크라이나 서부서 모듈식 강철 고가도로자재 생산 시작) • 헝가리: 간츠웍스(철도수요 증가를 대비하여 스페인 열차 제조업체 탈고 인수 추진) |

Source: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언론자료, 삼일PwC경영연구원

(3) 한국의 우크라이나 지원 동향 및 재건사업 참여 현황

■ 한국정부의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지원 활동

- '22년부터 매년 URC에 참여 중인 한국은 우크라이나 정부와 재건협력 6대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국내 기업의 재건사업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한 전방위 지원에 나서고 있음

한국정부의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지원 활동

| 연월 | 주요 내용 |
|----------|--|
| '22년 7월 | • 스위스 루가노 URC 참여 |
| '23년 5월 | • 국토교통부,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우크라이나 인프라부와 재건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한-우크라이나비즈니스 포럼 개최 |
| '23년 6월 | • 영국 런던 URC 참여 |
| '23년 7월 | • 폴란드와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업무협약 체결 |
| '23년 9월 | •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한 민관 합동 원팀코리아의 우크라이나 방문 • 23억 달러 규모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지원을 위한 공여 협정 체결 • 폴란드에 우크라이나 재건협력센터 개소 • 우크라이나 정부와 '6대 선도 프로젝트' 발표 |
| '23년 11월 | •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해외건설협회 주관 우크라이나 재건협력 기업 설명회 개최 •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등 철도 원팀코리아의 우크라이나 방문 및 철도 재건사업 참여 업무협약 체결 |
| '24년 2월 | • 제8차 MDCP 운영위원회에서 신규 회원국으로 공식 가입 |
| '24년 4월 | • 우크라이나에 21억 달러 규모 EDCF 기본 약정 체결 |
| '24년 6월 | • 독일 베를린 URC 참여 |
| '24년 9월 | • 체코와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 '24년 10월 | • 한국수출입은행, 우크라이나 정부와 1억 달러 차관계약 체결 |

Source: 언론자료, 삼일PwC경영연구원

부처별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지원 활동

| 부처 | 연월 | 주요 내용 |
|----------|---------------------------------|--|
| 기획재정부 | '23년 10월 | • 방한 우크라이나 의원단과 EDCF 기본 약정 신속한 체결 촉구 등 재건 협력방안 논의 |
| | '24년 4월 | • 미국 워싱턴 우크라이나 지원회의의 참여 • 우크라이나 지원 패키지 본격 이행 발표 • 우크라이나에 21억 달러 규모 EDCF 기본 약정 체결 |
| | '24년 5월 | • EBRD와 우크라이나 지원 협력 • 우크라이나 지원 재난대응특별기금 공여 협정 |
| 국토교통부 | '22년 11월 | • 우크라이나 의원단과 재건 협력방안 논의 • 업계 및 공기업 간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및 재건사업의 선도적 참여 강조 |
| | '23년 3월 | • 우크라이나 교통 인프라 재건을 위한 32개국 회담 참여 |
| | '23년 5월 | • 우크라이나 경제개발무역장관과 스마트시티 개발 플랫폼 등 협력방안 논의 •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우크라이나 인프라부와 재건 협력 업무협약 체결 |
| | '23년 9월 | • 국토교통부 중심 민관 합동 원팀코리아 우크라이나 방문 |
| | '23년 10월 | • 방한 우크라이나 의원단과 인프라, 도시개발 등 재건 협력방안 논의 |
| | '23년 11월 | • 해양수산부, KIND, 해외건설협회와 함께 우크라이나 재건협력 기업 설명회 개최 |
| | '24년 2월 | •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현황 분석 및 참여전략 연구 용역 발주 |
| '24년 11월 | • 한-폴란드 인프라 및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포럼 참석 | |
| 외교부 | '23년 2월 | • 폴란드 바르샤바 우크라이나 재건 박람회 참여 |
| 산업통상자원부 | '23년 10월 | • 방한 우크라이나 의원단과 전력 인프라, 원자력, 자원 공동개발 등 재건 협력방안 논의 |

Source: 산업연구원, 언론자료, 삼일PwC경영연구원

■ 한국 공공기관의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참여

- 한국수자원공사 등 공공기관은 한국과 우크라이나 양국 정부가 협력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6대 선도 프로젝트⁴⁾ 중심으로 재건사업에 나서고 있음

4) '23년 9월 우크라이나 키이우를 방문한 민관 합동 우크라이나 재건협력 대표단(원팀코리아)과 우크라이나 정부는 양국 정부가 협력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6대 선도 프로젝트 발표

공공기관별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지원 활동

| 부처 | 연월 | 주요 내용 |
|---------------------------|----------|--|
| 한국수자원공사 (K-water) | '23년 9월 | • EBRD에서 물 관리 및 우크라이나 재건 참여 기관 간 상호협력 업무협약 체결 • 재건협력 6대 선도 프로젝트 중 하나인 카호우카 댐 재건 업무협약 체결 |
| | '23년 11월 | • 부차시 산업단지 협력 업무협약 체결 |
| | '24년 1월 | • 리비우 및 호로독시 도시개발 · 상수도 현대화 사업분야 업무협약 체결 |
| | '24년 6월 | • 호로독시 도시조성계획 발표 • 트루스카베츠시 정수시설 지원협력 추진 • 부차시 산업단지 조성계획 발표 • 수자원청과 물 인프라 재건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 지원공사(KIND) | '23년 7월 | • 재건협력 6대 선도 프로젝트 중 하나인 우만 스마트시티 마스터플랜 수립 진행 |
| | '23년 11월 | • 재건협력 6대 선도 프로젝트 중 하나인 키이우 교통 마스터플랜 1단계 사업 진행 |
| | '24년 4월 | • 키이우 교통 마스터플랜 2단계 사업 진행 |
| | '24년 6월 | • '24년 6월 베를린 URC에서 폴란드 무역보험공사(KUKE)와 전쟁보험을 활용한 우크라이나 진출 업무협약 체결 |
| 한국국제협력단(KOICA) | '22년 8월~ | • 의약품, 모니터, 발전기, 의료 기자재 등 지원 |

Source: 산업연구원, 언론자료, 삼일PwC경영연구원

우크라이나 재건협력 6대 선도 프로젝트

| 프로젝트명 | 주요 내용 | 담당기관 |
|------------------|--|-------------------------|
| 키이우 교통 마스터플랜 | • 키이우 지역(수도 키이우 포함) 재건비전 수립 • 도로·철도·스마트 모빌리티 등 광역교통망 계획 수립 및 사업모델 발굴, 이와 연계된 주요 거점개발사업 추진 | KIND(총괄) LH·도로공사 |
| 우만 스마트시티 마스터플랜 | • 중부 우만시에 대해 한국의 스마트시티 기술을 활용한 도시개발전략 수립(스마트도시 기반시설 및 솔루션 등) | KIND(총괄) 수자원공사 등(시행) |
| 보리스필 공항 현대화 등 재건 | • 스마트공항시스템 및 항행안전 시스템 제공 등 현대화사업 • 공항 확장·개발(활주로 등) 사업 및 마스터플랜 수립 등 | 한국공항공사 |
| 부차 하수처리시설 | • 부차시 하수처리장 사업 추진계획 수립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 카호우카 댐 재건 등 | • 부대시설 설계 등 카호우카 댐 재건 기술지원, 그 외 노후수력 댐 진단 및 현대화 사업 추진 | 수자원공사 |
| 철도노선 고속화 | • 우 키이우~폴 바르샤바 구간(919km) 중 우크라이나 구간(580km) 철도노선 고속화 계획 수립 등 | 철도공단 |

Source: 국토교통부, 삼일PwC경영연구원

■ 민간기업의우크라이나재건사업 참여

- 정부의 재건사업 지원 활동에 힘입어 현지 도로·철도 공항 등 교통 인프라, 스마트시티, 건설, 농업부문 등에서 한국 민간 기업들의 활동 진행 중

국내 기업의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진출 현황

| 부문 | 기업 | 주요 내용 |
|-------|------------|---|
| 운송·교통 | 현대로템 | • '23년 11월 우크라이나 철도차량 120량 제작 및 유지보수사업 수행 업무협약 체결 • '24년 8월 우크라이나 국영 철도청과 고속철도차량 공급 논의 |
| | 도화엔지니어링 | • '23년 6월 폴란드 고속철도 설계사업 수주 → 우크라이나와 이어지는 철도망 재건사업 참여 시도 |
| | KG모빌리티 | • '24년 3월 우크라이나 국방부와 픽업트럭 공급 업무협약 체결 • '24년 6월 우크라이나 딜러를 통한 중형 SUV 모델 토레스 현지 공식 출시 |
| | 에스지이(SG) | • '23년 12월 미콜라이우 도로 재건 업무협약 체결 • '24년 2월 우크라이나 현지법인 설립 • '24년 6월 미콜라이우 도로 재건사업 실증 테스트 진행 • '24년 12월 우크라이나에서 출원한 에코스틸아스콘 제조기술 특허 취득 |
| | 현대건설 | • '23년 7월 보리스필 국제공항공사와 공항 확장공사 협약 체결 |
| 에너지 | 현대건설 | • '23년 4월 미국 홀텍 인터내셔널과 '팀 홀텍'을 구성하여 우크라이나 원자력공사와 소형모듈원자로(SMR) 건설 협력계약 체결 • '23년 11월 우크라이나 전력공사와 송변전 공사 관련 업무협약 체결 • '23년 12월 우크라이나 원자력공사와 원전사업 협력의향서 체결 |
| | 삼부토건 | • '24년 5월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관계자들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구축 방안 논의 |
| | 현대에버다임 | • '24년 7월 우크라이나 현지 전력선 설치에 사용될 드릴 크레인 트럭 양산 돌입 |
| 스마트시티 | 삼성물산 | • '23년 7월 우크라이나 서부 리비우시와 스마트시티 개발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 |
| | 한아도시연구소 | • '23년 8월 우만 스마트시티 마스터플랜 수립사업에 수자원공사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입찰 및 선정 |
| | 제일엔지니어링 | • '23년 8월 우만 스마트시티 마스터플랜 수립사업에 수자원공사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입찰 및 선정 |
| | 삼부토건 | • '24년 6월 호로독시와 스마트시티 4.0 프로젝트 업무 추진 양해각서 체결 |
| | 네이버 | • '23년 7월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기업 간담회에서 스마트시티 건설에 활용될 디지털 트윈·생성형 AI 기술 수출 계획 발표 |
| 건설·제조 | 현대엔지니어링 | • '23년 7월 폴란드 PGZ와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23년 11월 우크라이나 재건 박람회에 참가해 모듈러 건축 사업 업무협약 체결 • '24년 4월 우크라이나 현지기업과 석유화학단지 개발 사업 업무협약 체결 |
| | 포스코인터내셔널 | • '23년 3월 우크라이나 재건 TF 구성 • '23년 11월 미콜라이우 주정부와 모듈러 제조시설 설립 업무협약 체결 |
| | HD현대사이드솔루션 | • '25년 1월 리비우주와 인프라 복구를 위한 장비 공급, 물류 허브시설 건설 관련 협력 방안 논의 |
| | 아이특시 | • '23년 10월 키이우 현지 합작법인 설립 |
| 농업 | 대동 | • '24년 11월 현지 농기계 수입판매 총판과 3년간 트랙터 공급 광역 총판 계약 체결 • '25년 1월 우크라이나 현지 시장에 트랙터 출하 개시 |
| | TYM | • '22~'24년 우크라이나 현지 농작업, 건설 등에 활용 가능한 트랙터, 작업기 등 전달 • '24년 11월 방한 우크라이나 의원단과 재건사업 협력 담화 진행 |

Source: 언론자료, 삼일PwC경영연구원

참고자료 과거 전후 재건사업 조명

(1) 과거 전후 재건사업 사례

과거 전후 재건 사례

| 성공 사례 | 실패 사례 |
|--|---|
| <p>[제2차 세계대전 후 마셜플랜(Marshall Plan)]</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주도한 유럽 재건·원조 계획으로 정식 명칭은 유럽부흥계획(European Recovery Plan) '48년 미국은 대외원조법(Foreign Assistance Act) 제정 및 4년간 총 133억 달러 규모의 자금 지원 지원대상은 공산권 국가를 제외한 서유럽 및 북유럽국가로, 이들 국가 간 무역 활성화도 함께 도모 유럽의 경제성장과 더불어 유럽 경제 통합 촉진 및 서방의 결속력을 제고시킨 재건사업임 미국은 당시 GDP대비 약 2% 규모의 자금을 사용했으나 이를 통해 전후 미국이 글로벌 패권국가로 자리매김했으며 자동차, 중공업, 테크, 우주항공 등의 산업이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음 | <p>[이라크 전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03년 대량살상무기 제거, 후세인 정권 축출 및 민주주의 확산을 명분으로 미국이 이라크 침공, 약 1개월 만에 승리, '11년 이라크에서 미군 완전 철수, '17년까지 이라크 내전 지속되며 재건 난항 재건실패요인: ① 이라크 전후 복구에 있어서 전쟁의 명분부터 재건사업에서의 강대국간의 협력 부족으로 사업 차질, ② 이라크내 불안한 치안상황, 테러리즘 확산 등 무력충돌 우려 및 사전준비 부족 등의 영향 국내 기업들도 다수 재건사업에 참여하였으나 무산되거나 공사 미수금 등이 발생함 |
| <p>[한국전쟁 후 재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은 '50년대 전쟁 당시 미국의 군사지원을 거쳐, 정전 협정이 체결된 '53년 이후에도 미국의 원조에 의존하여 재건 추진 미국의 지원 하에 성장의 기틀 마련 한국은 '50년대 5% 이상 → '60년대 8% → '70년대 10%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며 경제 급성장 | <p>[보스니아 전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냉전시대 말기 다양한 민족과 종교가 있는 유고슬라비아 연방공화국의 해체 과정에서 발생한 유혈분쟁. Dayton 협정으로 종결 EU 주도 하에 인프라 재건 및 초기 국가 거버넌스 형성 지원 유럽의 화약고로 불리는 발칸반도 내 정세 불안과 잦은 분쟁으로 재건사업에 필요한 투자 유치에 어려움 봉착하며 전후 재건에 필요한 지원금의 5% 정도 모집에 그침 실패요인: 독립 후 초기 국가 정착 단계에서의 불안정한 거버넌스와 지정학적 리스크 지속에 대한 불안정성 |

Source: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언론자료, 삼일PwC경영연구원

과거 전후 재건 사례의 시사점

| 시사점(지향점) | 참고 사례 |
|----------------------------------|--|
| 국제사회의 공감 및 적극적인 협력에 기반한 재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라크 침공 당시 국제사회의 공감을 얻지 못한 미국은 재건 과정에서도 반전국가들과 갈등·대립 |
| 대상 국가의 정치적·경제적 상황을 고려한 재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칸반도 내 잦은 분쟁으로 인한 재건사업 차질 이라크 내 권력 공백에 따른 테러리즘 확산과 종파분쟁도 재건사업의 큰 걸림돌로 작용 |
| 장기적으로 지원 대상국과 공여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재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2차 세계대전 후 진행된 마셜플랜은 유럽의 경제성장 뿐 아니라 미국을 포함한 서방의 결속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됨 미국의 상호방위원조법은 미군이 필요로 하는 무기를 초과하는 수량에 한하여 NATO 가맹국 및 한국 등에 방위를 지원함으로써 상호 이익 도모 |

Source: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언론자료, 삼일PwC경영연구원

(2) 한국 전후 재건사업 참여사례: 이라크 재건사업

■ 이라크 전후 재건사업 참여

- 한국은 정부 차원에서 '03년부터 송배전, 도로교통인프라, 발전시설 등의 다양한 이라크 재건사업 참여를 지원하였으나 이라크 내 종파 갈등과 사회 불안이 심화되면서 수주활동에 제약 발생, 공사 미수금, 계약 해지 등의 사례도 발생함
- 테러단체 이슬람국가(IS)의 세력 약화, 사업 리스크 완화되며 그동안 정체되었던 이라크 재건사업이 재차 주목 받음

국내 기업의 이라크 재건사업 진출 내역

| 기업 | 사업 | 주요 내용 |
|------------------------------|-----------------------------|--|
| 현대건설 | '04년 댐 관개시설 및 송배전 복구공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4년 이라크 전역의 댐 관개시설, 북부지역 송배전 복구공사 수주 • 2억 2천만 달러 규모 공사 |
| 한국SOC컨소시엄 | '08년 쿠르드 재건사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기업: 쌍용건설, 현대건설, 두산건설, 극동건설, 코오롱건설, 안흥개발, 유아이앤씨 • '08년 쿠르드 자치지역 사회기반시설 개발사업 MOU 체결 • 지역 상하수도, 발전시설, 고속도로, 학교 건설 공사, 107억 달러 규모 • 사업을 위한 19억 달러 금융조달을 이뤄내지 못해 '08년 10월 사업무산 및 컨소시엄 청산 |
| 현대엔지니어링 | '11년 알 쿠두스 가스터빈 발전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그다드 근교 500MW급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14년 완공) • 사업비 2억 2천만 달러 규모 |
| | '11년 타자 가스터빈 발전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비 8,800만 달러 규모('13년 완공) |
| STX | '11년 루마일라 가스터빈 발전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418MW급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14년 완공) • 사업비 3억 8천만 달러 규모 |
| | '11년 디젤발전플랜트 프로젝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년 2,500MW, 3조원 규모 디젤발전플랜트 건설 수주 • '12년 6월 프로젝트 중 1단계에 해당하는 900MW 디젤발전플랜트 완공 |
| 한화 건설부문 | '12년 비스마야 신도시 사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3km² 부지에 주택 10만 가구 및 사회기반시설 등 신도시 건설 • 101억달러 규모 도시개발 사업 • '12년 착공 후 '22년 10월 이라크 발주처의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계약 해지 • '23년 1월 장관급 수주지원단 현지 파견, 6월 한·이라크 공동위원회 개최, 9월 양국 정상회담 진행 • '24년 12월 잔여 사업 재개(잔여 7만가구, '32년 완공목표, 변경된 계약금액 104억 달러) |
| 삼성엔지니어링 | '12년 웨스트 쿠르나 가스-오일분리 플랜트 사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러시아 Lukoil이 발주한 10억 달러 규모 프로젝트('15년 완공) • 남부 바스라 지역에 플랜트 구축 • 1일 46만 배럴 원유 생산 |
| | '13년 바드라 가스분리 플랜트 사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3년 러시아 국영 천연가스회사 Gazprom에서 발주한 9억 달러 규모 프로젝트('17년 완공) • 바그다드 남동쪽으로 160km 떨어진 바드라 유전단지에 가스정제설비 및 발전·저장탱크 등 유틸리티 기반시설 구축 |
| | '14년 주바이르 유전개발 프로젝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탈리아·이라크 국영석유회사 등으로 구성된 ENI VC가 '14년 발주한 주바이르 유전개발 프로젝트 중 8억 4천만달러 규모 북부 가스-오일 분리 플랜트 공사 수주('17년 완공) • 1일 20만 배럴 원유 생산 |
|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SK에코플랜트, GS건설 | '14년 카르발라 정유공장 프로젝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그다드 남쪽 카르발라 지역 내 정유설비 건설공사 • 사업비 60억 4천만 달러 규모 • '14년 1월 수주 및 4월 착공 • '18년 완공 목표였으나 Covid-19 여파 및 이라크 정부 재정난으로 공사가 지연되어 '23년 준공 • '25년 1월 보도에 따르면 참여기업들이 미회수한 공사대금은 약 4천억 원 |

Source: 언론자료, 삼일PwC경영연구원



III.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의 기회와 리스크 요인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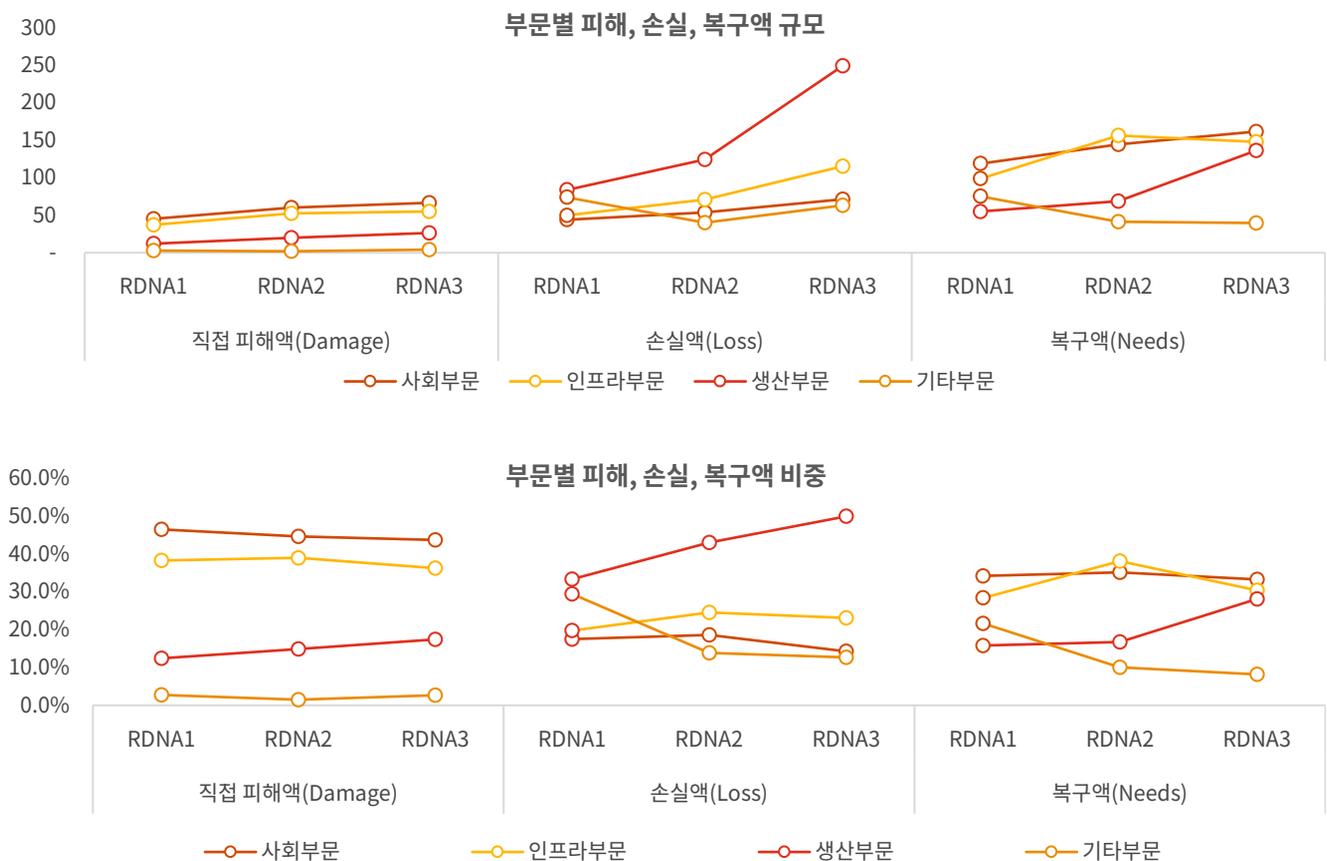
1. 기회 요인

(1) 재건사업 규모

■ 재건규모

- 우크라이나 정부와 World Bank에서는 '22년부터 '24년까지 3차례에 걸쳐 매해 전쟁으로 인한 직접 피해, 손실, 규모와 향후 10년간의 복구 필요 금액을 추산한 RDNA(Ukraine Rapid Damage and Needs Assessment) 보고서를 발행함
 - RDNA1('22년 8월): 전쟁 발발 후 3개월간의 규모 추산
 - RDNA2('23년 3월): 전쟁 발발 후 1년간의 규모 추산
 - RDNA3('24년 2월): 전쟁 발발 후 2년간의 규모 추산
-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피해·손실·복구액은 증가하는 추세
- 최근 발표된 '24년 RDNA3에 의하면 직접 피해 규모는 1,525억 달러, 재건에 필요한 금액은 4,862억 달러로 추산
- 주거, 교통, 산업시설, 농업, 에너지 등의 사회, 생산부문 등의 피해액이 컸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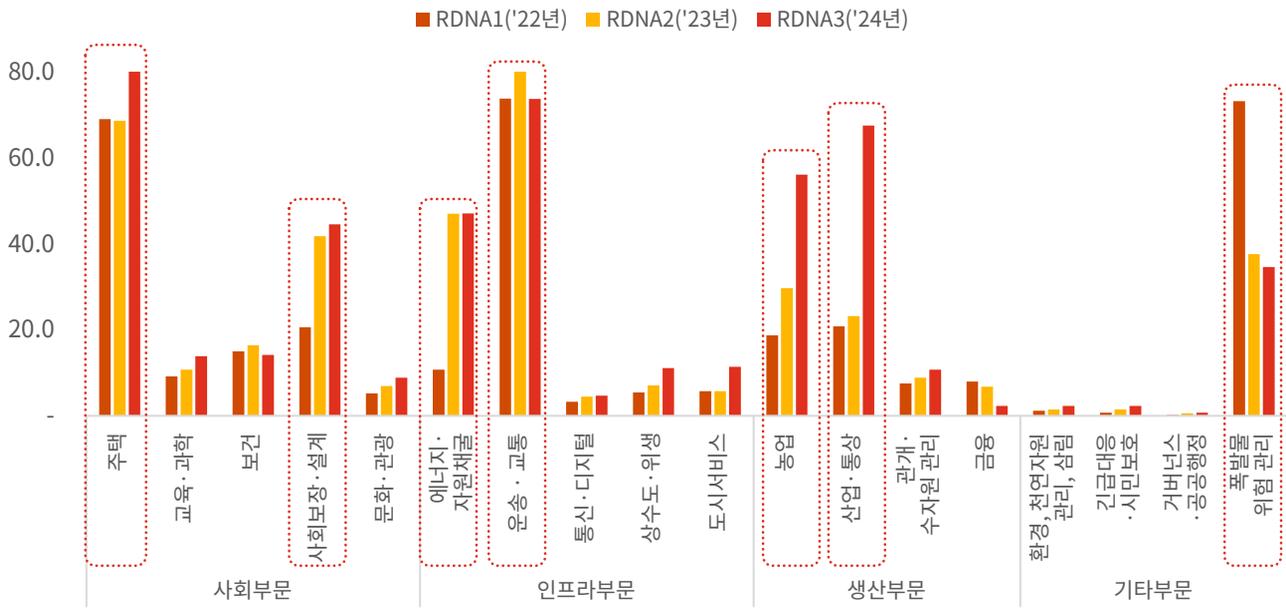
부문별 직접 피해·손실·복구 필요금액 - 전쟁 장기화되며 손실액 급증 (단위: 십억 달러)



- 직접 피해(Damage)는 물리적 자산 및 인프라 파괴 또는 손상에 대한 직접 비용으로, 교체 또는 수리 비용(전쟁 전 시세 고려)을 화폐가치로 환산
- 손실(Loss)은 운영 비용 증가, 정부 및 민간 부문의 수익 손실 등 전쟁으로 인한 경제적 흐름의 변화를 화폐가치로 환산
- 총복구액은 더 나은 재건(Building Back Better) 원칙(에너지 효율 개선, 현대화 추구, 지속가능성 제고 등)에 기반한 복구 활동과 글로벌 인플레이션, 보험료 인상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해 추정

Source: World Bank,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삼일PwC경영연구원

부문별 복구 필요금액 규모 (단위: 십억 달러)



Source: World Bank, 삼일PwC경영연구원

RDNA3('22년 2월~'23년 12월) 직접 피해·손실·복구 필요금액 (단위: 십억 달러)

| 구분 | 직접 피해(Damage) | 손실(Loss) | 복구 필요금액(Needs) | |
|----------|---------------|--------------|----------------|------|
| 사회부문 | 주택 | 55.9 | 17.4 | 80.3 |
| | 교육·과학 | 5.6 | 6.9 | 13.9 |
| | 보건 | 1.4 | 17.8 | 14.2 |
| | 사회보장·생계 | 0.2 | 9.5 | 44.5 |
| | 문화·관광 | 3.5 | 19.6 | 8.9 |
| 인프라 부문 | 에너지·자원 | 10.6 | 54.0 | 47.1 |
| | 운송·교통 | 33.6 | 40.7 | 73.7 |
| | 통신·디지털 | 2.1 | 2.3 | 4.7 |
| | 상수도·위생 | 4.0 | 11.6 | 11.1 |
| | 도시서비스 | 4.9 | 6.8 | 11.4 |
| 생산부문 | 농업 | 10.3 | 69.8 | 56.1 |
| | 산업·통상 | 15.6 | 173.2 | 67.5 |
| | 관개·수자원 관리 | 0.7 | 0.7 | 10.7 |
| | 금융 | - | 5.7 | 2.3 |
| 기타부문 | 환경·천연자원 관리·삼림 | 3.3 | 26.5 | 2.3 |
| | 재난 대응·시민보호 | 0.4 | 0.5 | 2.3 |
| | 거버넌스·공공행정 | 0.3 | 1.7 | 0.7 |
| | 폭발물 위험 관리 | - | 34.6 | 34.6 |
| 계 | 152.5 | 499.3 | 486.2 | |

Source: World Bank, 삼일PwC경영연구원

(2) 부문별 재건사업

■ 재건사업의 주요 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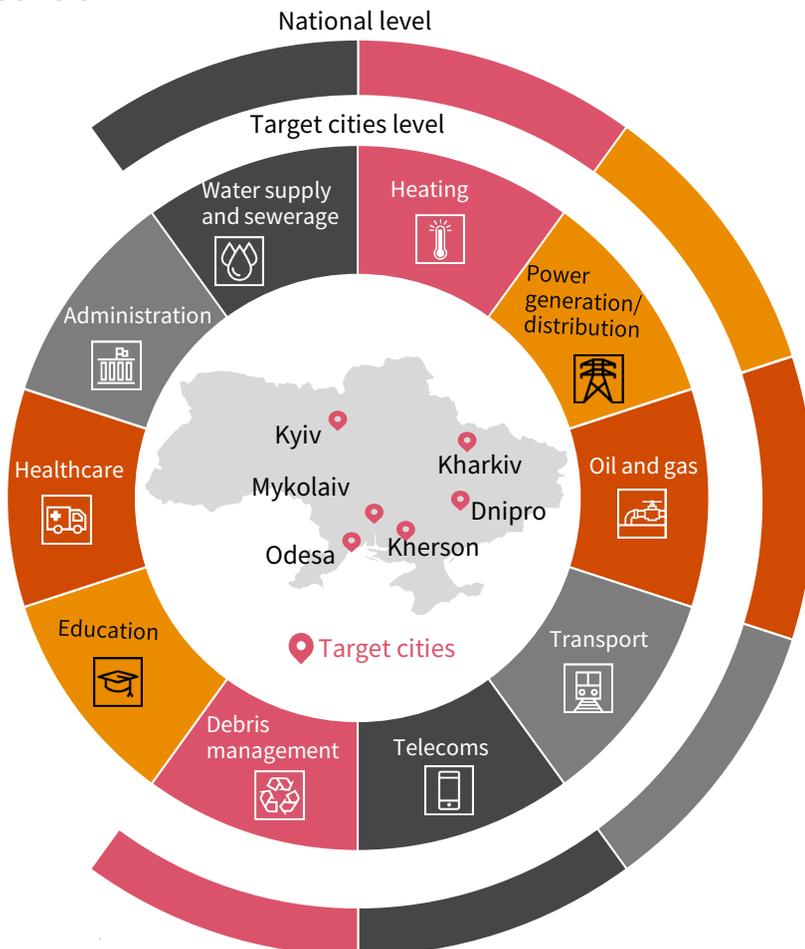
- RND3 보고서에 의하면 주거부문의 복구금액 비중이 가장 높으며, **운송·교통, 산업·농업분야, 에너지, 사회보장, 폭발물 위험관리** 등의 규모도 컸음
- RDNA3에서 에너지 부문의 규모는 주거나 교통 부문 대비 작았으나 보고서 집계 기간 이후인 '24년도에 발전소 등 에너지 시설이 피해가 커 향후 복구 금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이 중 **에너지, 교통, 주택 등 총 6개 부문을 우선 복구 사업 분야로 선정함**

6대 우선 복구 사업 분야

| | 분야 | 주요내용 |
|---|----------------|--|
| 1 | 에너지 | 송배전선 복원 및 수리, 재생에너지 개발 및 전력망 보호 등을 통한 발전 용량 복원 및 분산화 |
| 2 | 교통 | 내부 및 국경 간 연결에 중점을 둔 운송 도로, 철도, 교량, 항구, 우편 서비스 재건 |
| 3 | 주택 및 공공시설 | 주택 수리 및 재건, 중앙 난방, 에너지 효율, 상하수도, 폐기물 관리 서비스 복원 |
| 4 | 사회 기반 시설 및 서비스 | 학교 및 의료 시설의 수리, 재건축, 사회·문화 인프라, 서비스 복원 |
| 5 | 산업 및 서비스 | 투자 및 무역 위험 제거를 중점에 둔 산업 및 상업, 농업 등 민간 부문 주요 산업 및 서비스 복원 |
| 6 | 부문별 우선순위 | 지뢰 제거, 통신, 디지털 및 사이버 보안, 비상 대응 및 시민 보호, 민주주의, 정의 및 인권 강화 |

Source: RDNA3, 산업연구원, 삼일PwC경영연구원

주요 재건 분야 및 중점 복구 지역



■ **국내기업의 주요 참여 예상 분야**

- 에너지, 교통운송, 주택, 보건의료 부문 등이 우크라이나 재건에 있어서 시급한 분야이자 국내기업들이 과거에 재건사업 참여 이력이 있거나 혹은 강점을 보유하고 있는 분야임
- 하기의 분야별 복구 필요 금액은 '22년 2월 ~ '23년 12월까지의 피해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전쟁 장기화에 따라 예상 복구 금액은 증가할 전망

참여 예상 분야별 주요 내용

| | |
|--------------|--|
| 에너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탄도미사일과 드론 공습 등으로 훼손된 발전시설 복구 등에 471억 달러의 필요 금액 예상 • 24년에도 에너지·발전시설 중심으로 공습 • 전쟁 전부터 추진 중인 에너지 자립 차원에서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 분야도 주목 필요 → 전쟁 전 우크라이나 전력 생산량 중 원자력 비중은 50%를 초과하였으며, 신재생에너지 비중도 매년 증가세였음 • EU 편입을 위해 EU의 적극적인 기후위기 대응에 동참 필요 → 그린수소 등 친환경·탄소중립 관련 투자 예상 |
| 운송·교통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쟁에 따른 물류 중단의 영향으로 '22년 GDP 급감에 큰 영향을 미침('22년 GDP 29% 감소) • 곡물과 철광석 등의 40% 이상이 해상운송으로 이송되는데 전쟁 초기 항구 봉쇄로 교역 위축 & 육상운송으로 전환되며 육상운송 의존도 높아짐 • 육상 도로 및 철도 시설, 창고 등 보관 및 화물 터미널 등의 인프라 시설 수요 증가 • 긴급 복구 및 시설 확충과 더불어 물류자동화 및 현대화를 위한 사업 규모 확대 • 도로, 철도, 공항 등 운송·교통 인프라가 상당수 파손되어 737억 달러의 복구금액 필요 |
| 주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쟁으로 가장 많은 피해를 본 분야로 우크라이나 내 주택의 10% 이상이 파괴된 것으로 추산 • 주택기반 시설 복구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으며 주택건설 및 임시거처 구축 과정에 803억 달러의 복구비용 필요 |
| 보건·의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기반시설 손상, 대규모 인구 이동에 따른 의료진 부족으로 전반적인 의료서비스 접근이 어려워짐 • '24년부터 향후 10년간 약 142억 달러의 복구금액 예상. 타 분야 대비 규모는 적으나 전쟁에 따른 재활과 치료를 위해 필수적인 시설이므로 시급성은 큼 • 총 3회의 폴란드 우크라이나 재건박람회(에서 건설, 도로교통, 에너지 시설 복구 등의 주제가 비중 있게 다뤄졌으나 3차 박람회의 주제가 '의료와 재건'인 만큼 중요도가 높음 |

Source: RDNA,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삼일PwC경영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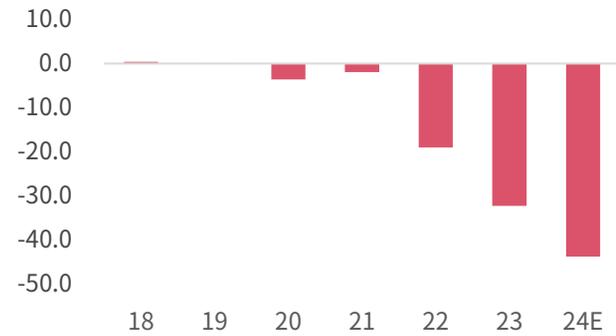
2. 리스크 요인

제2의 마셜플랜으로 불리나 그 이면의 리스크 요인 점검 필요

■ 우크라이나의 심각한 재정 문제

- 전쟁 장기화로 재정난 악화. '22년 전쟁 발생으로 인해 재정 적자 급격히 증가. '23년과 '24년에는 더욱 확대
- 재정적자규모는 '22년 191억 달러, '23년 324억 달러로 급증, '24년 436억 달러로 크게 확대 예상
- 전쟁으로 인해 국가 재정운영의 대부분을 원조에 의존하고 있으며, 국방비 증액 움직임도 있어 재건사업 여력은 매우 낮음
- 또한 각국의 국방비 증액에 따라 우크라이나 지원 여력이 축소될 수 있으며, 더욱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추가적인 지원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은 부담 요인

우크라이나 재정적자 (단위: 십억달러)



Source: 우크라이나 재무부, 삼일PwC경영연구원

■ 재건 리소스 부족

- 핵심 공업지역인 돈바스 등 남동부 지역의 러시아 점령 (러시아는 해당 지역 반환 불가 입장)
- 전쟁으로 인한 급격한 인구 감소 및 인력 유출로 노동력 부족. 경기침체로 인해 전쟁이전부터 우크라이나인들의 해외 이주 증가, 전쟁으로 인한 해외 망명 및 도피 등으로 인구가 감소 (p34. 인구 추이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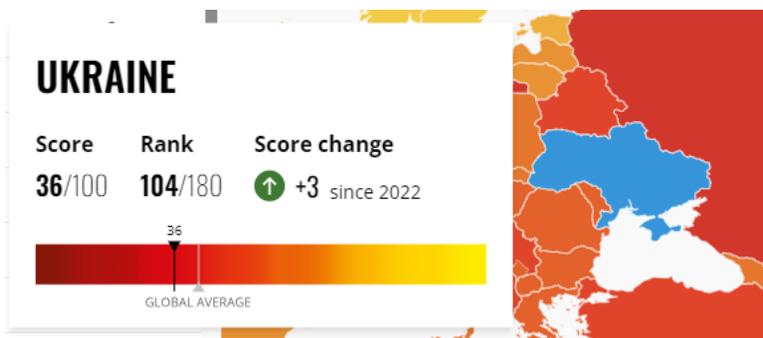
■ 공공과 정치 부문의 부패 문제

- 공공부문의 부패문제는 재건사업 난이도를 높임
- '91년 舊소련으로부터 독립한 이후 정치와 공공부문에서 부패 만연. 전쟁 중에도 군사장비와 보급품조달의 횡령, 군비와 보급품 유용, 관료사회에 만연한 뇌물수수 등과 같이 공공과 정치부문의 부패가 심각하다는 평가를 받아옴
- 부패감시 단체인 국제 투명성 기구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부패 지수는 180개국 중 104위로 지난해 대비 상승하였으나 여전히 하위권. 이렇게 높은 부패문제는 추후 NATO 가입 EU가입에도 제약 요소로 작용할 전망
- 미국, EU 등 서방국가의 지원과 원조가 절실한 상황에서 높은 부패 수준은 신뢰성에 문제를 일으킴. 추후 재건사업에서 사업의 인허가, 공사대금의 원활한 수취, 재건사업 자금의 용도, 구매 물자 조달 및 이용의 투명성 악화 우려 존재

■ 미국과 EU 국가 대비 지원 금액 열위, 해외 건설사 대비 우크라이나 공사 이력 미미

-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시 지원금액이 큰 국가에게 사업의 우선권이 주어져 상대적으로 사업기회 측면에서 열위에 위치할 수 있음. 우리나라와 우크라이나 간 적극적인 협력 약속과 핵심 프로젝트 공유, 국내 기업의 과거 이라크 재건사업 참여 이력 등은 긍정적이나 사업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여지도 존재

우크라이나 부패지수(국제 투명성 기구 발표)



Source: 국제투명성 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 삼일PwC경영연구원



IV. 시사점 및 제언

1. 시사점 및 제언

■ 전후 재건사업에 대한 기대와 우려 공존

- 트럼프 2기 정부가 본격화되며 러-우 전쟁의 종식에 대한 기대감 고조와 함께 재건사업 또한 주목 받을 전망
 - 트럼프는 국제 평화와 전쟁 종식을 강조, 취임전부터 빠른 시일내에 전쟁을 마무리하려는 의지가 강함
 - 제2의 마셜플랜이라 불리며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에 대한 높은 기대감으로 글로벌 기업들의 사업 선점 경쟁도 높아질 것
-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우크라이나 재정난 문제, 인력 및 재건의 리소스 부족, 정부 및 공공부문의 부패문제, 사업권 획득에 있어서의 순위 열위 가능성 등의 리스크 요인도 존재
- 이라크 전쟁 후 국내 기업이 참여했던 재건 프로젝트에서 보듯, 공사 지연 및 미수금 발생, 프로젝트 취소, 중단 프로젝트 재개 등 사업 전반과 자금 출처 및 대금 지급의 불확실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기업 차원에서는 리스크를 면밀히 검토하되 유망 분야에 대해서는 적극 참여하고, 글로벌 기업들과의 협력 고려**
- **정부 차원에서는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사업 참여를 위해 투자정보 및 투자 인센티브, 보증 프로그램 제공 등의 지원책 제공 필요**
- 또한 금번 재건사업을 유럽시장 확대 측면에서 중장기 신시장 개척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

전략적 제언

| | |
|-----------|---|
| 기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택적 사업 분야 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거 이라크 재건사업 참여 이력이 있는 건설, 플랜트, 에너지, 전력 등 다양한 분야에 국내 기업 경쟁력 보유 - 사업성 및 안정성 등 언급한 리스크 요인들을 고려하여 선택적으로 진입할 필요 • 재건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국가와의 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EU, 폴란드 등 적극적인 지원과 상대적으로 풍부한 정보 보유한 국가와의 협력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크라이나는 EU 가입을 희망하고 있어 EU 표준에 맞게 사업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음. 또한 EU의 지원금이 미국만큼 커 EU 국가에 사업 기회가 많아질 수 있음 - 폴란드는 우크라이나 난민을 적극적으로 수용. 난민 비용까지 고려하면 GDP 대비 지원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 또한 이미 세차레나 우크라이나 재건 박람회를 개최하며 적극적인 행보에 나서고 있음 - 따라서 EU 국가 및 폴란드 등의 주요 기업과 공동 프로젝트 혹은 컨소시엄 구성하여 참여하는 방안 적극 고려 ② 일본 상사 및 건설 등 관련분야에서 일본 기업과의 협업 및 공동 프로젝트 수행을 적극 고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은 우크라이나 지원규모가 한국 대비 5배가 크며, 에너지, 원전, 수소, 천연가스, 발전 등의 분야에 적극적으로 진출하는 만큼 국내기업 대비 일본기업에 재건 사업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을 것으로 예상. 따라서 일본 상사나 건설사 등과의 협력을 통해 공동 수주 추진을 고려할 필요 있음 - 한일관계 개선되었고, 국내 건설사들이 해외 수주에서 한일 협력 사례 및 공동 수주 사례가 다수 존재하여 이를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에도 적용 및 확장시킬 수 있을 것 - 협력 사례: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일본해외교통도시개발사업지원지구(JOIN) NDA 체결 - 공동 해외 수주 사례: 삼성물산-미쓰이 상사, 현대건설-도요엔지니어링, 도화엔지니어링-시젠인터내셔널 등 • 글로벌 네트워크를 보유한 전문가 집단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네트워크를 보유한 회계법인이나 법무법인 등을 통해 금융·투자·법률 등의 분야에 자문 서비스 활용. 재건사업의 정보 확보 및 현지 기업/기관과의 협업 기회 포착 |
| 정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차원의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크라이나와의 미국, EU국 등 타 국가 대비 교류가 상대적으로 적고, 지원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어 사업기회와 정보에 있어 열위 가능성 존재. 이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국내기업 참여 유망분야에 대한 사업기회, 법, 제도적 정보 제공 필요 • 투자 인센티브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크라이나 지역은 상대적으로 우리 나라 기업들의 비즈니스가 활발히 이루어졌던 지역은 아니나 오히려 기회의 영역일 수 있음 → 정책 금융 및 대출 이차지원과 같은 금융 지원을 통한 투자 유인책 제공 • 정부 차원의 보증프로그램 강화: 사업 진행 및 공사 대금 등에 대한 보증 지원 필요 |

■ 우크라이나 재건과 함께 중장기적 신시장 개척 및 확대 기회

1) 건설분야

- 국내 건설분야의 해외 수주 개선 '10년대 이후 해외 저가 수주 경쟁으로 한동안 국내에 집중했으나 국내는 부동산 시장의 부침과 PF문제 등으로 업황 불황을 겪고 있어 해외 수주 확대 움직임이 나타남. 특히 유럽시장에 국내 건설사들의 익스포저 확대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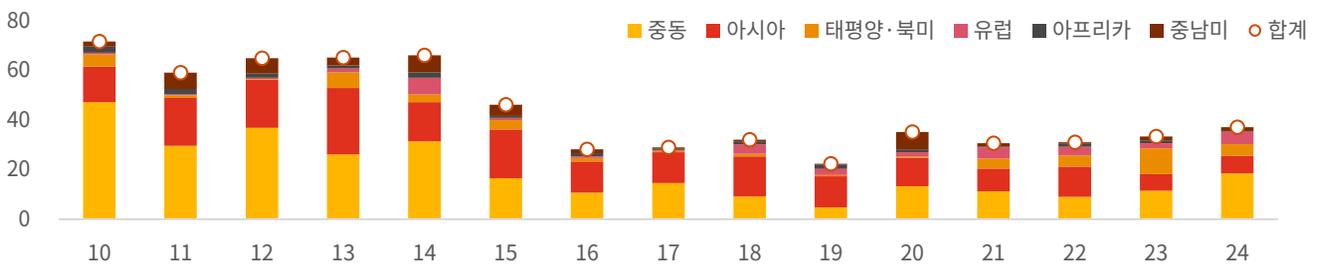
- 최근 '20년 이후 헝가리 50.3억 달러, 폴란드 45.1억 달러 수주. 현대ENG·삼성물산 등이 해외 대형 프로젝트 잇따라 수주

- 유럽시장은 친환경 정책을 근거로 에너지, 발전, 플랜트 등 분야를 중심으로 시장규모가 크게 형성될 수 있으며 국내 건설 업계는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을 유럽 시장 진출을 도모하는 계기로 삼아야 함

2) 국방·방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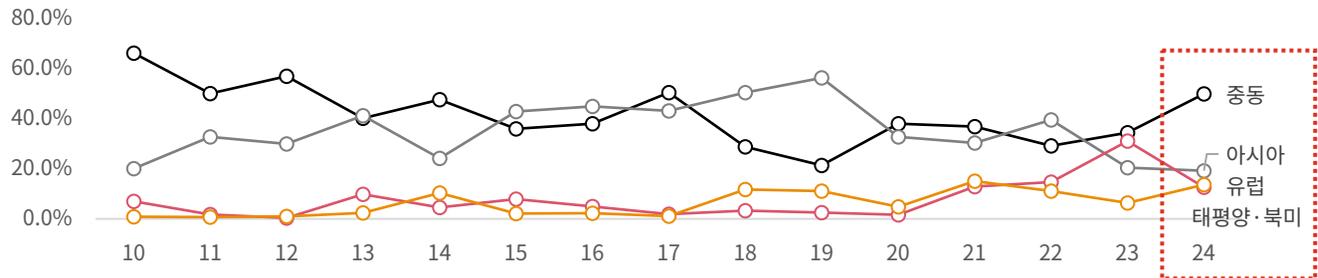
- 러·우 전쟁 발발, 트럼프의 국방비 증액 요구에 각국 국방비 지출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국내 방산업체에는 기회 요인
- 러·우 전쟁에서 보듯 전통 방산 무기 뿐만 아니라 현대식 무기의 활약이 돋보였던 점을 볼 때 국내 방산 포트폴리오는 상대적으로 전통 무기 위주로 되어 있다는 점에서 포트폴리오의 변화도 필요할 것

지역별 해외 수주규모 - '20년 이후 헝가리·폴란드 진출에 따라 유럽시장 익스포저 확대 (단위: 십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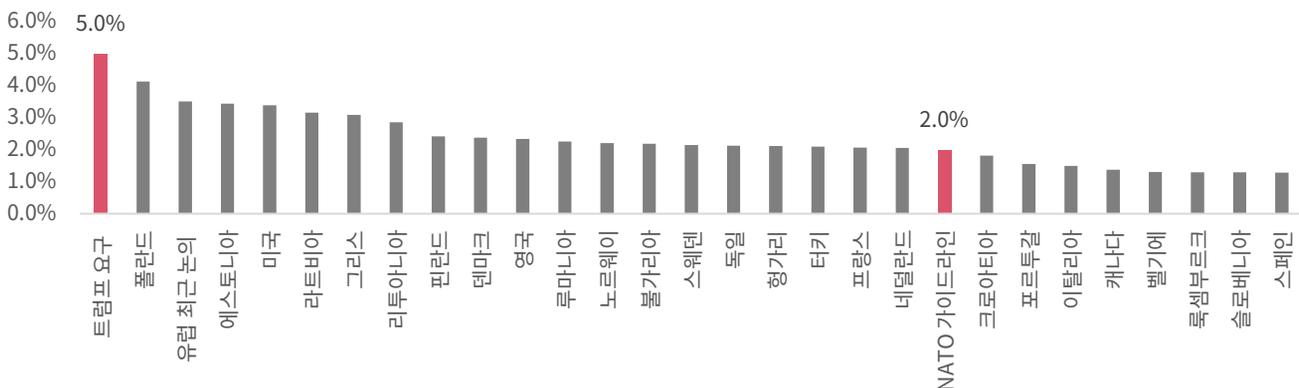
Source: 해외건설협회, 삼일PwC경영연구원

지역별 해외 수주비중 - '24년 유럽시장 비중 상승, 아시아 지역 비중과 유사



Source: 해외건설협회, 삼일PwC경영연구원

GDP 대비 국방비 비중 - 트럼프의 압박에 따라 유럽지역 국방비 증액 전망



Source: NATO, 언론자료, 삼일PwC경영연구원



Appendix:

우크라이나 개요

1. 국가 개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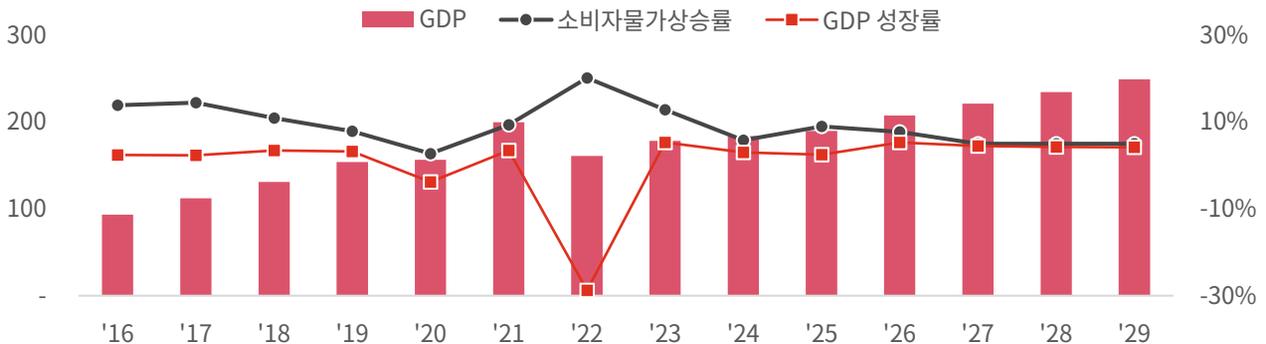
■ 국가 개황

- 독립: 소비에트 연방의 구성국이었던 우크라이나는 '91년 소련 해체로 독립
- 영토: 603,550km²(한국 영토 6배)
- 수도: 키이우(Київ)
- 인구: 기존 43백만명 수준이었으나 전쟁 과정에서 8백만명 가량 감소. '24년 33백만명으로 추산
- 인접국가: 러시아, 벨라루스, 폴란드, 슬로바키아, 헝가리, 루마니아, 몰도바

■ 주요 경제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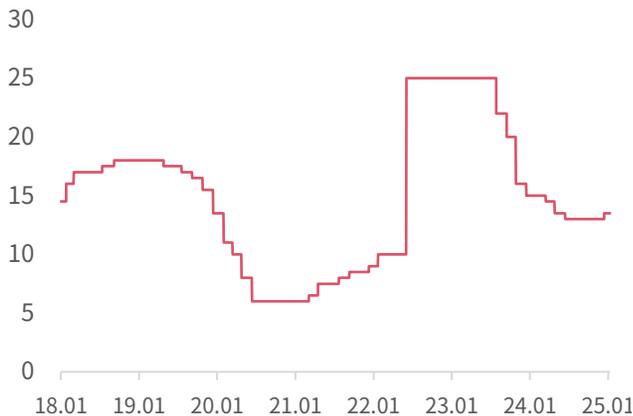
- GDP('23년): 1,788억 달러
 - 러시아의 침공으로 '22년 GDP 성장률 -29%를 기록하며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었으며,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전후 재건 대상 규모도 늘어나는 중 → '23년 성장률은 5%대를 기록
 - 국제통화기금(IMF)은 '25~'29년까지 향후 5년 간 연평균 4%대의 경제성장률 전망
- 소비자물가상승률: '22년 20%까지 치솟은 이후, 하락 중이며 '25~'29년 IMF 전망치는 평균 6%
- 기준금리: 전쟁 초기인 '22년 6월 10%에서 25%로 15%p 대폭 인상 → '23년 7월부터 인하 시작 → 현재 13.5%

우크라이나 GDP (단위: 십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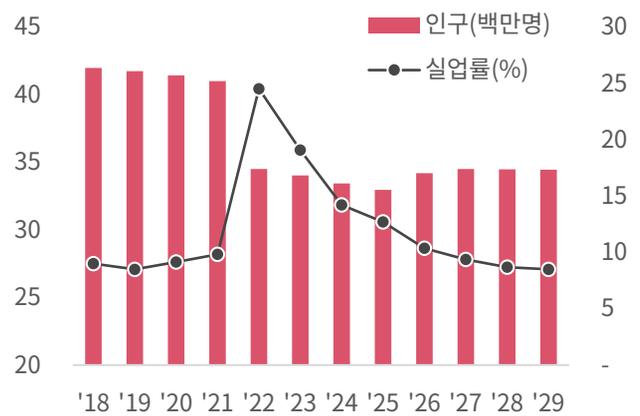
Source: IMF, 삼일PwC경영연구원

우크라이나 기준금리 (%)



Source: National Bank of Ukraine, 삼일PwC경영연구원

우크라이나 인구·실업률



Source: IMF, 삼일PwC경영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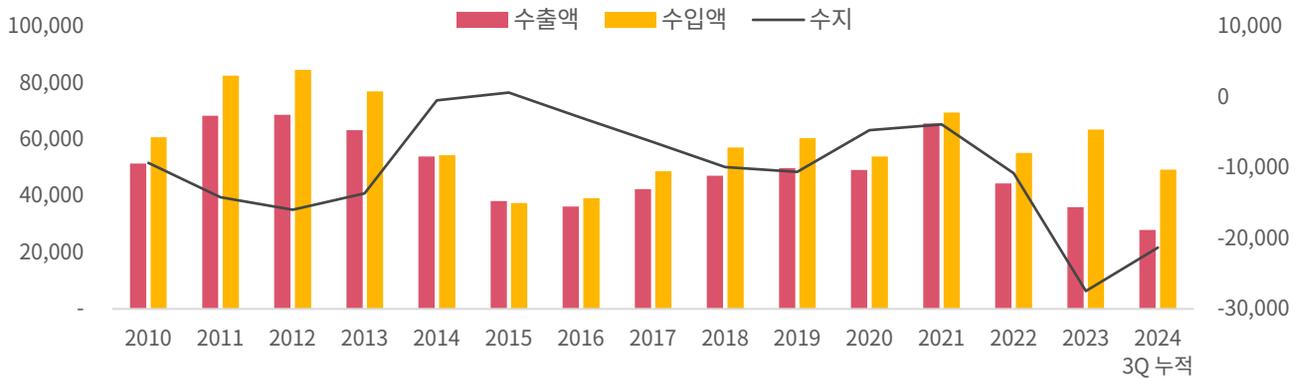
2. 교역

(1) 교역 전반

■ 무역 규모 및 주요 수출입 품목

- 전쟁 전인 '21년과 비교할 때 '23년 수출액은 45% 감소, 같은 기간 무역적자는 39억 달러 → 275억 달러로 6배 급증
- '23년 기준 주요 수출입 품목
 - 전쟁 이후 제조기반과 인프라 파괴로 수출 규모 감소 및 품목의 변화 발생. 구호물자 증가와 에너지시설 파괴로 인한 연료 수입 증가
 - 수출품목(비중%): 옥수수·밀·보리 등 곡물(23%)과 동·식물성지방(16%)이 주요 수출 품목, 철강제품은 생산 위축
 - 수입품목(비중%): 석유와 가스 등 연료(16%)의 비중이 가장 높으며, 그 뒤를 이어 승용차·트랙터·화물차 등 차량(11%)

연도별 우크라이나 수출입 규모 (단위: 백만 달러)



Source: K-STAT, 삼일PwC경영연구원

우크라이나 주요 수출입 품목 (HS코드 2단위 기준,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 '21년 수출 | | '21년 수입 | | '23년 수출 | | '23년 수입 | |
|----|-----------|--------|------------|--------|-----------|-------|------------|--------|
| | 품목 | 금액 | 품목 | 금액 | 품목 | 금액 | 품목 | 금액 |
| 1 | 철강 | 13,950 | 광물성연료 | 14,330 | 곡물 | 8,307 | 광물성연료 | 10,363 |
| 2 | 곡물 | 12,344 | 보일러 등 기계류 | 8,000 | 동·식물성지방 | 5,649 | 자동차 | 6,969 |
| 3 | 금속광물 | 7,120 | 자동차 | 7,070 | 채유용종자·과실 | 2,819 | 전기기기 | 5,957 |
| 4 | 동·식물성지방 | 7,037 | 전기기기 | 6,206 | 철강 | 2,648 | 보일러 등 기계류 | 5,300 |
| 5 | 전기기기 | 3,139 | 플라스틱 | 3,596 | 금속광물 | 1,870 | 기타 | 4,917 |
| 6 | 채유용종자·과실 | 2,435 | 의료용품 | 3,057 | 전기기기 | 1,664 | 플라스틱 | 2,798 |
| 7 | 보일러 등 기계류 | 2,121 | 화학공업생산물 | 1,732 | 목재 | 1,489 | 의료용품 | 2,142 |
| 8 | 목재 | 2,000 | 비료 | 1,664 | 사료 | 1,398 | 광학·측정·의료기기 | 1,434 |
| 9 | 사료 | 1,733 | 철강 | 1,550 | 보일러 등 기계류 | 957 | 철강 | 1,307 |
| 10 | 철강제품 | 1,293 | 광학·측정·의료기기 | 1,484 | 육류 | 892 | 비료 | 1,231 |

Source: K-STAT, 삼일PwC경영연구원

■ 주요 무역 상대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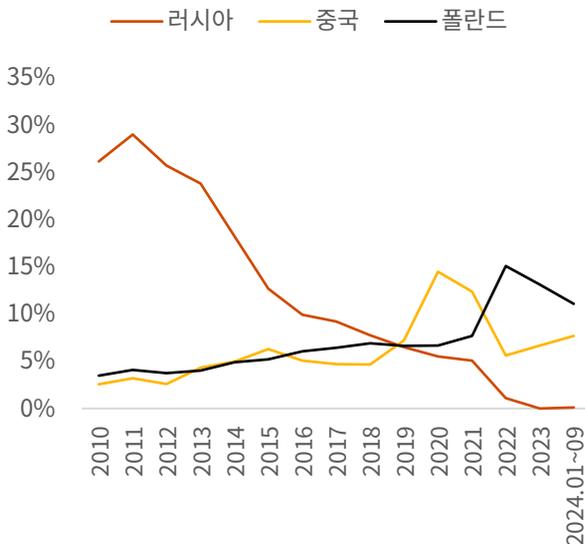
- 우크라이나의 최대 교역국은 '18년까지 러시아였으나 전쟁이후 교역 급감
- 전쟁 발발 이후 중국과 폴란드가 주요 무역국가로 부상. '19년~'21년은 중국, '22년부터는 폴란드(수출)·중국(수입)과의 거래 비중이 가장 높음

우크라이나 주요 교역국 변화 (단위: 백만달러)

| 순위 | '14년 수출 | | '14년 수입 | | '21년 수출 | | '21년 수입 | | '24년(1~3Q) 수출 | | '24년(1~3Q) 수입 | |
|----|---------|-------|---------|--------|---------|-------|---------|--------|---------------|-------|---------------|-------|
| | 국가 | 금액 | 국가 | 금액 | 국가 | 금액 | 국가 | 금액 | 국가 | 금액 | 국가 | 금액 |
| 1 | 러시아 | 9,799 | 러시아 | 12,679 | 중국 | 8,113 | 중국 | 10,377 | 폴란드 | 3,097 | 중국 | 9,572 |
| 2 | 튀르키예 | 3,561 | 중국 | 5,409 | 폴란드 | 5,049 | 독일 | 6,007 | 스페인 | 2,313 | 폴란드 | 4,881 |
| 3 | 이집트 | 2,862 | 독일 | 5,360 | 튀르키예 | 3,867 | 러시아 | 5,878 | 중국 | 2,149 | 독일 | 3,796 |
| 4 | 중국 | 2,674 | 벨라루스 | 3,971 | 러시아 | 3,324 | 폴란드 | 4,866 | 튀르키예 | 1,492 | 튀르키예 | 3,201 |
| 5 | 폴란드 | 2,645 | 폴란드 | 3,067 | 이탈리아 | 3,168 | 벨라루스 | 4,784 | 이탈리아 | 1,424 | 미국 | 2,569 |
| 6 | 이탈리아 | 2,471 | 미국 | 1,932 | 독일 | 2,889 | 미국 | 3,395 | 독일 | 1,388 | 이탈리아 | 1,906 |
| 7 | 인도 | 1,817 | 이탈리아 | 1,509 | 인도 | 2,270 | 튀르키예 | 3,179 | 네덜란드 | 1,351 | 불가리아 | 1,689 |
| 8 | 벨라루스 | 1,617 | 헝가리 | 1,464 | 네덜란드 | 2,128 | 이탈리아 | 2,535 | 이집트 | 1,332 | 슬로바키아 | 1,530 |
| 9 | 독일 | 1,591 | 튀르키예 | 1,298 | 이집트 | 1,955 | 스위스 | 1,730 | 루마니아 | 1,316 | 체코 | 1,476 |
| 10 | 헝가리 | 1,510 | 프랑스 | 1,267 | 헝가리 | 1,595 | 프랑스 | 1,710 | 불가리아 | 809 | 그리스 | 1,360 |
| | ... | | ... | | ... | | ... | | ... | | ... | |
| | 한국(28위) | 510 | 한국(23위) | 478 | 한국(41위) | 323 | 한국(25위) | 653 | 한국(39위) | 128 | 한국(21위) | 56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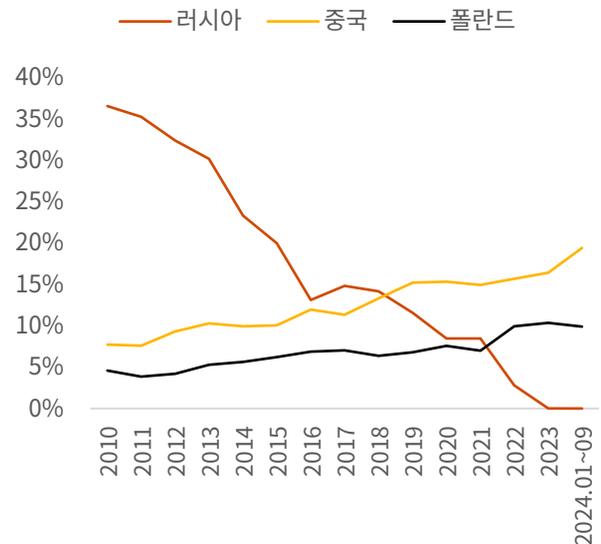
Source: K-STAT, 삼일PwC경영연구원

우크라이나의 러시아·중국·폴란드 수출비중



Source: K-STAT, 삼일PwC경영연구원

우크라이나의 러시아·중국·폴란드 수입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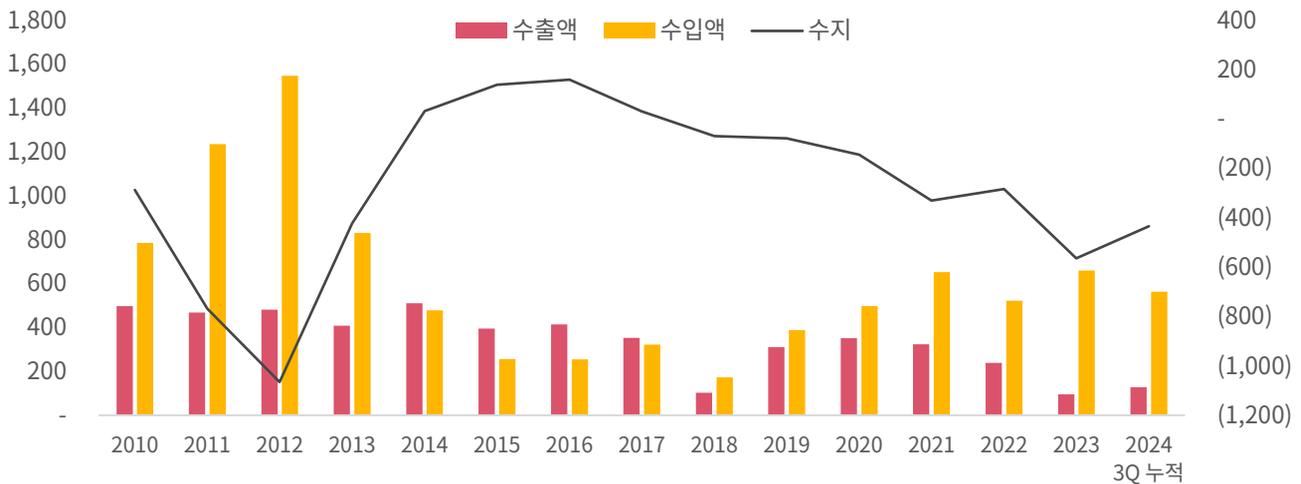
Source: K-STAT, 삼일PwC경영연구원

(2) 우리나라와의 교역관계

■ 교역규모 및 주요 수출입 품목

- 한국은 '24년 1~3Q 기준 우크라이나의 수출국 순위 39위(128백만 달러), 수입국 순위 21위(563백만 달러)
- 한국의 對우크라이나 수출 규모는 '22~'23년 지속 감소. 특히 수출의 상당부분은 원조 물자로 상업 물품 수출이 급감함 ('22년도의 절반, '23년도의 1/3 정도가 정부 혹은 해외기관이 원조를 지원한 물품으로 추정)
- '24년 11월 누적 기준 한국의 우크라이나向 수출품목에서는 차량(37%), 정유·화장품(16%), 광학·의료기기(12%) 등이 상위권에 있는 반면, 수입품목에서는 옥수수·밀 등 곡물(86%)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음

연도별 우크라이나의 對한국 수출입 규모 (단위: 백만 달러)



Source: K-STAT, 삼일PwC경영연구원

한국의 對우크라이나 주요 수출입 품목 (HS코드 2단위 기준,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 '21년 수출 | | '21년 수입 | | '23년 수출 | | '23년 수입 | |
|----|------------|-----|---------|-----|------------|-----|-----------|-----|
| | 품목 | 금액 | 품목 | 금액 | 품목 | 금액 | 품목 | 금액 |
| 1 | 자동차 | 174 | 곡물 | 146 | 자동차 | 127 | 곡물 | 393 |
| 2 | 철강 | 69 | 무기화학품 | 39 | 정유·화장품 | 57 | 전기기기 | 30 |
| 3 | 플라스틱 | 64 | 동·식물성지방 | 35 | 광학·측정·의료기기 | 40 | 동·식물성지방 | 12 |
| 4 | 정유·화장품 | 48 | 전기기기 | 21 | 보일러 등 기계류 | 24 | 보일러 등 기계류 | 8 |
| 5 | 보일러 등 기계류 | 47 | 금속광물 | 20 | 철강 | 20 | 비편물제 의류 | 3 |
| 6 | 광학·측정·의료기기 | 35 | 목재 | 12 | 고무 | 17 | 목재 | 1 |
| 7 | 고무 | 29 | 철강 | 6 | 전기기기 | 16 | 철강제품 | 1 |
| 8 | 전기기기 | 21 | 사료 | 5 | 의료용품 | 12 | 완구·운동용품 | 1 |
| 9 | 의료용품 | 21 | 워딩·펠트 | 4 | 플라스틱 | 6 | 화학공업생산품 | 1 |
| 10 | 화학공업생산품 | 12 | 비편물제 의류 | 3 | 비금속제 공구 | 5 | 고무 | 1 |

Source: K-STAT, 삼일PwC경영연구원

3. 자원 현황

■ 광물 자원 보유 현황

- 우크라이나 정부의 '11년 발표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117여종의 광물과 2만여개의 매장지 보유
- '23년 세계 광물 보고서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생산량 기준 세계 24위의 광물 생산국으로 EU 핵심 광물 34개 중 22개 보유**. 우크라이나 보유 핵심 광물에는 티타늄과 리튬, 천연 흑연, 마그네슘, 갈륨, 희토류, 코발트, 백금족 등이 포함
- 캐나다 지정학 위기 분석사 SecDev의 분석에 따르면, 러-우 전쟁으로 우크라이나에 접근이 어려워진 광물의 티타늄·철 광석·리튬·석탄 등 지하 자원의 경제적 가치는 12조 4천억 달러 수준으로 추정됨
- 우크라이나는 상당한 광물 자원보유국이지만 광물 채굴에 필요한 허가 절차가 복잡하고, 전쟁으로 인해 접근이 어려워졌으며, 유럽, 미국 등의 선점으로 인해 추후 경쟁 심화가 예상됨. 그러나 주요 광물의 매장량과 경제 발전을 위한 광물개발에 우호적인 정부 태도를 감안하면 추후 국내기업들이 진출 가능 영역이 될 것으로 판단됨

'23년 세계 주요 광물 생산국 (다이아몬드 제외)

| 순위 | 국가 | 생산량(백만 미터톤) | 생산량 비중(%) | 생산가치(백만 달러) |
|----|---------|-------------|-----------|-------------|
| 1 | 중국 | 4,639 | 25.4 | 879,461 |
| 2 | 미국 | 2,217 | 12.1 | 652,348 |
| 3 | 러시아 | 1,676 | 9.2 | 506,217 |
| 4 | 오스트리아 | 1,310 | 7.2 | 246,674 |
| 5 | 인도 | 1,125 | 6.2 | 188,994 |
| 6 | 인도네시아 | 684 | 3.7 | 135,502 |
| 7 | 사우디아라비아 | 636 | 3.5 | 289,925 |
| 8 | 캐나다 | 526 | 2.9 | 223,136 |
| 9 | 브라질 | 504 | 2.8 | 149,811 |
| 10 | 이란 | 440 | 2.4 | 136,975 |
| | ... | | | |
| 24 | 우크라이나 | 108 | 0.6 | 20,173 |

Source: KOTRA, 2023 세계 광물 보고서, 삼일PwC경영연구원

우크라이나 주요 광물

| | | 매장량 多 | | | |
|--|-------------------------------|---|------------------------------|---|-------|
| 채굴량 少 | [상당한 매장량 & 제한적 채굴] | 메탄, 리튬, 탄탈륨, 니오븀, 베릴륨, 희토류(스칸듐, 이트륨, 세륨) 금, 은, 게르마늄, 백운석, 중정석 | [상당한 매장량 & 집중 채굴] | 우라늄, 철광석, 망간, 티타늄, 무연탄, 갈탄, 이탄, 흑연, 지르코늄, 하프늄, 카올린(1, 2차 점토), 석영 모래 | 채굴량 多 |
| | [제한적 매장량 & 제한적 채굴] | 니켈, 코발트, 유황, 칼륨염, 설탕 생산용 석회, 납, 아연, 알루미늄, 마그네슘 | | | |
| | | 매장량 少 | | | |
| [미탐사 · 미개발 광물] 크롬, 구리, 주석, 텅스텐, 몰리브덴, 비스무트, 갈륨, 인듐, 레늄, 형석, 수트론튬, 세슘, 다이아몬드, 형석, 마그네사이트, 인회석, 인산염 등 | | | | | |

Source: KOTRA, Zakon, 삼일PwC경영연구원

Author Contacts

이 희 정 수석연구위원

삼일PwC 경영연구원

heijung.lee@pwc.com

안 정 효 책임연구원

삼일PwC 경영연구원

jeonghyo.ahn@pwc.com

삼일PwC경영연구원

최 재 영 경영연구원장

jaeyoung.j.choi@pwc.com

Business Contacts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지원센터

Deal

이상민 Partner
sangmin.lee@pwc.com

한정탁 Partner
jungtak.han@pwc.com

정진오 Director
jin-oh.chung@pwc.com

Public Sector

김병일 Partner
byoung-il.kim@pwc.com

유옥동 Partner
ok-dong.yu@pwc.com

김동수 Partner
dong-su.kim@pwc.com

Tax

김홍현 Partner
hong-hyeon.kim@pwc.com

박광진 Partner
kwang-jin.park@pwc.com

PwC Consulting

유원석 Partner
won-seok.yoo@pwc.com

조운희 Director
woonhee.cho@pwc.com

www.samil.com

삼일회계법인의 간행물은 일반적인 정보제공 및 지식전달을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 구체적인 회계이슈나 세무이슈 등에 대한 삼일회계법인의 의견이 아님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간행물의 정보를 이용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삼일회계법인은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아니하며, 본 간행물의 정보와 관련하여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삼일회계법인 전문가의 자문 또는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S/N: 2502W-RP-019

© 2025 Samil PricewaterhouseCoopers. All rights reserved. "PricewaterhouseCoopers" refers to Samil PricewaterhouseCoopers or, as the context requires, the PricewaterhouseCoopers global network or other member firms of the network, each of which is a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y.